



# 소학생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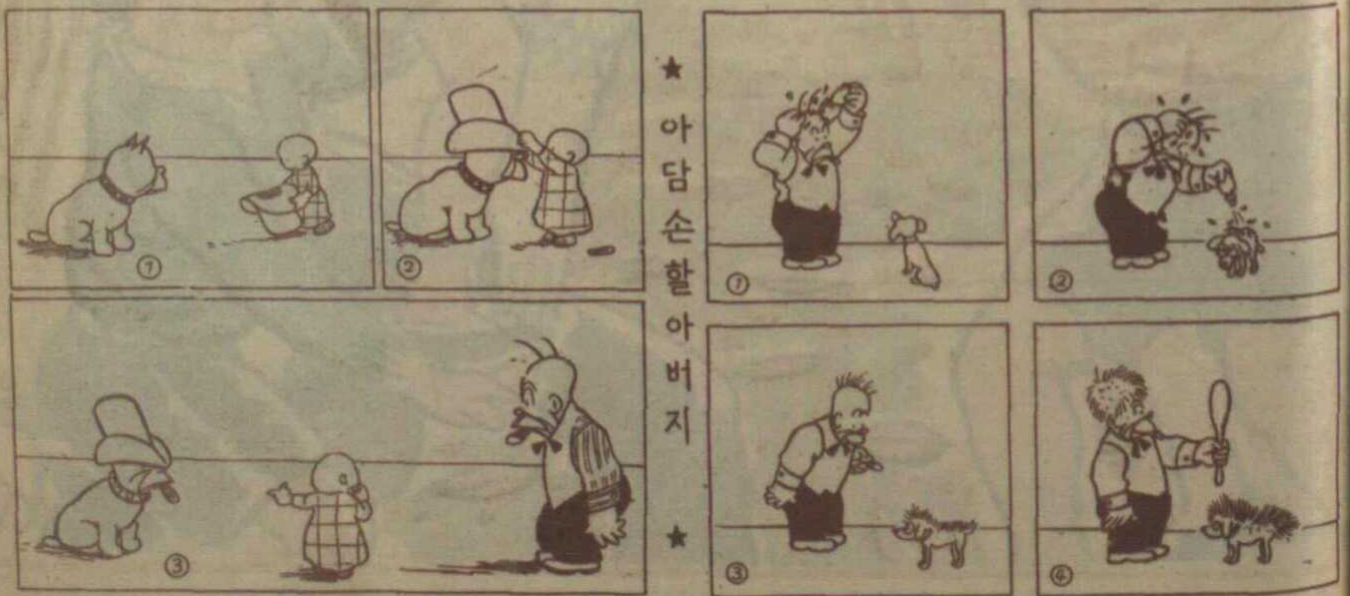


말소리 다르고 풍속도 다른 미  
나 먼 중국에서 자라난 우리 어  
린이 동무들—이번에 아파 입  
마들과 함께 모두 118명이 미국  
배로 꿈에마져 그리던 고국에 불  
아오다가, 중국 국부군의 배를 못  
타니게하는 때부터 안에 불분리  
어 하마 죽을번한 고생을 겪고,

기쁨의 조국 부산에 내렸습니다.  
3명은 계서 고향으로 돌아지  
고, 남은 분들이 10월 10일 무사  
히 서울에 다달았다는 말을 들으  
신 국무총리 이 범석장군, 문교  
부장관 안 조상 박사, 사회부장  
관 이 윤영 선생 세 분은 13일  
아침에 밀타 오느라고 고단한

어린이와 그 식구가 임시로 묵고  
있는 갈월동 수용소에 가셔서, 우  
리 귀여운 어린이 동무들을 안으  
시고 한동안 착하신 할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진은 오른쪽으로부터 안 장  
관, 이 장관, 한 가운데가 이 국  
무총리)



# 소년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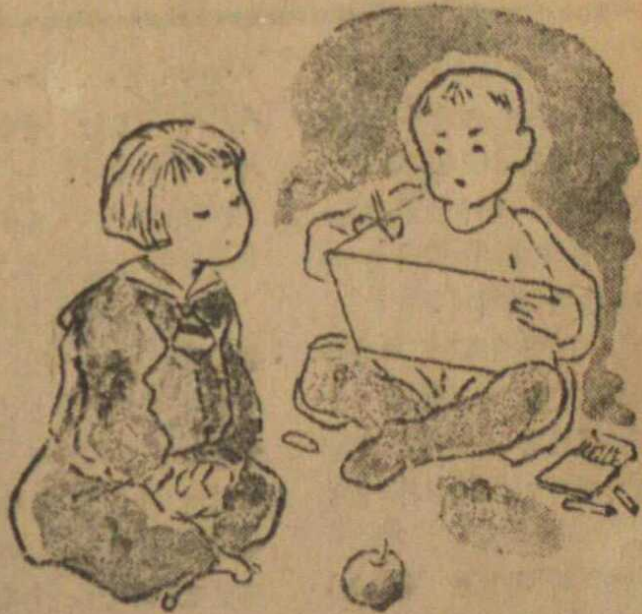
4232년 11월 1일 발행

11월치 72호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달의 메모★

- 11월3일 학생의날. (서기 1929년 전 날 광주 교보 학생과 일인 중학생의 중들이 전국적인 항일 무장으로 커진 날.)
- 11월7일 파도를 발견한 퀴리 부인이 나온 날. (서기 1620년)
- 11월8일 입동. (立冬)
- 11월11일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다. (서기 1918년)
- 11월23일 소설. (小鮮)
- 11월26일 인경을 서울 종로 보신각 (普信閣)에 달다. (서기 1395년. 음력 10월 7일)
- 11월30일 이씨 조선 제 1대 임금인 성제가 영흥 흑석리에서 나온 날. (서기 1335년. 음력 10월 11일)



## ☆차례☆

- 동사 • 대거의 새하 ..... 윤 동주 (37)
- 동요 • 흰 물 줄 ..... 권 태웅 (19)
- 장편소설 • 어둠 없는 밤 ..... 정 안락 (18)
- 모험소설 • 모호 구마 ..... 박 은동 (34)
- 소설소설 • 꽃피는 화방 ..... 최 병희 (4)
- 소설소설 • 마차 밑에 가지 ..... 장 두운 (42)
- 동화 • 최후의 행복 ..... 장 식 (28)
- ☆ 산삼의 보물을 찾아서 ..... 홍 영인 (30)
- ☆ ..... 강 후원 (9)

- ☆ 희담 이야기 ..... 최 명환 (48)
- ☆ 새 공 부 ..... 윤 태영 (12)
- ☆ 우리나라 공부 ..... 조 유안 (25)

### ☆우리 학교 작품☆

- 마산 삼호 학교자 ..... (50)
- 수학 장난 ..... (52)
- 요술놀이 • 먹물이 카라멜도 ..... (52)
- 소년 상식 문답 ..... (12)
- 영리한 까마귀 ..... (6)
- 요일 앞아 내기 ..... (47)
- 어디가 잘못나? ..... (15)
- 우리 동무 동시집 ..... (24)
- 화보 • 중국서 나온 어린이들 ..... (2)

- 화보 • 강가에 앉아서 ..... 박 영종 (55)
- 만화 • 장난꾼은 벌 받는다 ..... 고 상영 (28)
- 만화 • 엑스선 ..... (15)
- 만화 • 아담은 할아버지 ..... (55)
- 단편박사 ..... (33) 순천의박사 ..... (32)
- 소학생 클럽 ..... (54)
- 만화고 나서 ..... (54)

- 애독자 아연 상라기 문제 ..... (33)
- 7월치 아연 상라기 발표 ..... (33)

작그림 그리신 분☆  
정현웅 • 김규택 • 조병덕 • 임동은 • 안후려  
김강 • 임 동은

# 꽃피는 희망

최 병 회 지음  
임 동 은 그림

○

메미들의 우는 소리가 새월 스럽게 들려온다. 뒷걸 운동장에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이 솟은, 포푸라 나무 우거진 묘사귀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인왕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활짝 학교로만 불어오는지, 찬 얼음결을 꺼엿는 듯하다. 금방 땀이 말라버리고, 더위가 물러간다.

생도들이 다 파해란 학교는, 교실이나, 운동장이나 끝 없이 조용하고 쓸쓸하여, 어느 깊은 산속에 홀로 와 있는 것 같다.

영숙이는 교장실, 직원실의 소재와 그밖에 오늘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내었다. 안제 집에 들어가도 관계하지 않지만 잡애 돌아 갈 것을 아주 잊어버린 사람 같아, 이층 복도에서 유리창을 열고, 하염없이 인왕산을 쳐다보기만 한다.

영숙이는 날이 하루 하루 갈수록 애가 타고, 근심이 더해간다. 영숙이는 9월 15일 안으로 3만원 돈을 변통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숙이는 지금 1만 5천원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영숙이는, 지금 새삼스럽게 자기의 철없는 행동을 뒤우쳐기까지 하였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1만 5천원을 변통한다.)

지금의 영숙이 형편으로는 단 돈천원도 나올 터이 없다. 입학 시험에 합격하였으면서도, 입학 수속금이 부족하여 학교에 못다니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만 1년 동안 어린 가슴 속에 깊이 간직했던, 희망과 결심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듯하다.

○

작년 6월 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곧 이 학교에 사동(급사)으로 취직한후부터, 오직 한 마음 야간 중학교라도 입학하리라 하고, 어린 가슴 속에 깊이 결심하였던 것이다.

6년동안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 졸업한 동무들이 거지만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에 못간 동무는 병든 두셋 가엾은 동무와, 자기 뿐인 것을 생각하고, 몹시 언짢아졌다. 마치 남들은 암흑한 광야에서 광명을 찾아 출달음쳐 가는데, 자기만 홀로 암흑한 광야를 더

들고 헤매이는 듯한 생각이 불에서, 한동안 마음을 지향할 수가 없었다.

덕후이 중학교에 입학한 동무들이 학교로 선생님을 뵈오러 올 때면, 영숙이는 귀구멍이 락도 뻗으면 숨을 듯이, 비슬비슬 그 동무들을 멀리 피해 미린다.

(내가 무슨 죄를 짓나. 왜 이럴까.)

영숙이는 자기의 버겁한 행동을 스스로 억누르고, 배정한 태도로 그 동무들과 반차히 만나 이야기하려 하였던데, 그 동무들은 영숙이를 본체만체해 버린다.

경쾌하게 차린 셀러북에 빅타이를 멋지게 매고, 원뿔 가슴에 빛나는 빠져(교포)를 달은 실업생들을 볼 때는, 이제는 그 동무들의 세계와 자기와의 세계는, 딴 세상 사람 같아 생각에 들어서, 감히 다정하게 말이 안나온다.

아니 이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너하고 상대가 안 된다.)하는 듯이 한번 거들며 보지도 않는 동무도 있다.

(내가 저희들처럼 중학교엔 못 가요, 학교에 급사로 취직한 것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는 까닭이다. 나도 내년엔 야학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영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결심을 굳게하고, 세 희망을 가졌다.

○

영숙이 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오빠가 인쇄소 견습직공으로 더닐다. 한달에 5천원 월가 말까하

는 월급으로, 어머니와 세 식구가 살아나가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웃집 빨래보하시고, 바느질 품도 파셔서 살인을 보태셨다. 공부 잘하고, 마음씨 착고, 귀엽게 생긴 영숙이는, 집안 형편을 너무나 또렷하게 잘 아는 까닭으로, 감히 중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 오빠도 영숙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눈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말만 꺼내는 것이 도리어 부질없다 생각하셨는지, 한마디도 입밖에 내시지 않으셨다.

담임이셨던 박 선생님께서, 영숙이가 중학교에 못가는 것을 못

내 애석히 여기셨다. 그리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뛰놀하는 것이 낫다하시고, 마침 학교에서 급사 한 사람을 더 쓰게 되어 영숙이를 소개해 주신 것이다.

“영숙아,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겠지만, 참아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굳세게 살아야 한다.

“주학만 다녀야 공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결심이 단단하여 성공한 예가 많다. 너도 내년부터라도 적당한 야학에 입학하기로 하자.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단 5백원씩이라두 저급해라.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그

대 벌통에 보기로 하자.”

박 선생님은 영숙이를 잘 동생 같이 격려하시고, 동정하셨다. 영숙이도, 선생님 말씀을 듣게 여기고는, 한동안 부끄럽고, 수줍고, 슬픈 생각을 다 풀려치고, 부지런히, 열심히, 명랑한 태도로 자기 맡은 책임을 아꼈 하였다.

시간 맞춰 상학중 하학중 지기, 교실에서 나오시는 선생님에게 차 따라드리기, 전화 받기, 또 교장실, 직원실 깨끗이 소제하기, 일제고사 때 바쁘신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그야말로 조금도 쉴새 없이 일을 하여

“영숙이는 너무 일을 해서 몇 이 날까 염려가 되는구나.”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가끔 받았다. 하여간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로 부터 귀염을 받았으며 또

“영숙아, 영숙아.”

선생님들의 부르시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서, 그야말로 영숙이는 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물 같게 되었다. 영숙이도 날마다 명랑할 기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그런데, 한두 차례 박 선생님께서 갑자기 학교를 그만 두시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군산으로 가실때는 할당한 지리가 있어서 지릴가시는 눈치였다.

영숙이는 친선이나 이별하는 것 이상으로, 섭섭하고 인형아저씨 한동안 일이 손에 걸리지 않았다.



영숙이가 xx 여자 상업학교 야간부 입학 시험에 합격이 된 후부터 자연 군산으로 시집가신 박 선생님을 간절히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박 선생님께서 야학이 2대1이라는 경쟁 속에서 합격된 기쁨을 나눌 것, 둘째 입학 수속금이 많아야 1만5천원쯤 되리라 생각한 것이, 예상 밖에 3만원이나 되어 어떻게 그 부족금을 변통할까 의문할 길이 없어서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단 5백원씩이라두, 저금해라.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그 때 변통해 보기로 하자.”

하시던 박 선생님의 고마움고, 믿음직한 말씀이 떠올랐던 까닭이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던 박 선생님은 군산으로 빨리 가서서 학교를 그만 두실 후로는 한번도 만나

볼 수가 없어서, 의문할 길이 한 곳도 없다.

어머니와 오빠에게는, 통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씀을 아니하였다. 집안 형편을 모르는 년이라고 역정을 내시거나, 언짢아 하질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이다.

오늘 영숙이는 이층 복도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모든 생각을 잊어 버리려는 듯이 푸른 하늘을 쳐다 보면서 가만 가만한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매미 소리가 더 한 층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시원한 바람도 계속하여 불어온다.

“영숙언니, 왜 입때 안갔수?” 하는 소리가 들린다. 영숙이가 훑끗 돌아다 보니, 6학년 4반 반장인 오 복희이다.

“넌 왜 또 왔니?” 영숙이는 얼른 수건으로 눈을 찼었다. 어느틈엔지 영숙이

눈에 눈물이 흐른 것이다. “응, 국어책을 빠뜨리고 가서 가질러왔어. 아, 그런데 언니 울었수, 눈이 빨정니?” “울긴 왜 울어.넌 별소릴 다 하는구나.” 영숙이는 시치미를 떼고 웃어까지 보인다.

“언니,요새 걱정되는 일이있나 보구료. 얼굴이 상했으니.....”

“아냐, 밤에 잠을 잘 못자서 그렇지.”

“아냐, 난 다 알구 있는데,언니의 비밀을...”

“비밀이 무슨 비밀야, 요것이 별소릴 다하네.호호호호...”

“언니,저 xx 여자 상업 학교에 합격이 됐지. 어머우 내가 귀신 같이 알아내지.호호호호...”

“요것이 어떻게 알았어?” “야학이지만 입학 수속금이



이것은 미국 어린이들이 배우는 셈본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에, 오래된, 늙다란 탑이 있었읍니다. 그 탑에는 아무도 사람은 살지 않았으나, 단지 까마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읍니다.

그 까마귀는 매우 영리하여

서 사람이 그 탑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당장에 까마귀는 밖으로 날아나와, 사람이 갈 때까지, 탑 바로 밖에 있는 소나무에 앉아 있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아무리하여도 그 까마귀를 잡을 수는 없었읍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그 영리한 까마귀를 보고자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읍니다.

그러자, 어느 학자가 이 얘기를 듣고,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

한가 시험해 보기도 하였읍니다.

처음에, 종을 들고, 사람 둘이서 탑속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곧 탑에서 날아나와서, 소나무에 앉아서는 사람이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이윽고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만이 나와서 가버렸읍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때에 탑속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읍니다.

얼마 있다가 속에 있던 한사람이 마저 나와서 가버리니까, 그 제서야 까마귀는 탑 속으로 돌아갔읍니다. 까마귀는 두 사람이라는 셈을 안 것이지요.

2-1=1라는 것을 알았기 때

많은걸.”

“예, 자그만치 3만원야. 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더라.”

“저런, 그래 어떻게 준비가 됐수?”

“내가 무슨 복에 중학교 다니니, 공연히 한번 장난해 본 것이지.”

“그래서야 쓰겠우. xx 여자 상업 야학부에는 공부 잘하고 재주있는 직업소녀만 모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녀야지...”

학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동안 영숙이와 복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왔다.

○

이러한 일이 있는지 1주일후이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다고 하므로, 영숙이가 교장실로 조심스럽게 들어 갔다. 향긋한 냄새

가 풍겨 온다. 오늘 영숙이가 새로 화병에 꽂아논 꽃향기다.

“영숙아, 이 꽃, 네가 갖다가 꽃았지? 냄새가 좋구나.”

교장 선생님은 인자하신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말씀하신다.

“자, 그 의자에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하시면서 대강 아래의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급사 영숙이가 xx 여자 상업 학교 야간부 입학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입학 수속금이 부족하여 못다닌다고 한다. 우리는 이 일을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단돈 얼마라두 좋으니, 돈을 건어 모아서 영숙이에게 보태 주자 하는 의론이 6학년 4반에서부터 일어 났다. 이것을 알

고 6학년 5반, 6반 여자도 찬성하고, 또 5학년 4, 5, 6반 여자도 자걸 돈을 모아오겠다고 반장들이 6학년 4반 반장 오 복희를 찾아 왔다. 그리하여 어제까지 모인 돈이 1만원이 넘었다.

이 아름답고, 눈물나는 소녀들의 순정을 6학년 4반이 선생님이 아시고, 몰시 감격하여 교장선생님께 자세한 경과를 보고하셨다.

“아, 그랬으? 이 사실은 우리 학교의 자랑할 일이요. 어린 소녀들도 그러한 자목한 생각을 가졌는데, 선생님 우리가 보구만 있어야 되겠오.”

하시고 곧 회장을 돌리셨다. 그 회장을 54명 선생님이 다모시고, 다시 교장 선생님께기도 돌아 올때는 거기 적은 돈이 모두 1만 5천원이나 되어, 교장선생님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하였

문에 “아직 속에 한 사람이 남아 있다. 들어가선 안되겠다.”고 생각됨에 들림 없읍니다.

이번에 학자는, 사내 셋을 시켜서 똑 같은 시험을 해 보았읍니다. 한 사람이 나가고, 두 사람이 나가도, 까마귀는 바깥의 소나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얼마나 영리한 까마귀일지? 그래서, 이번에는 세 사람이 달수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더니, 여전히 까마귀는 소나무에 앉아 있는 것입니

다. 남은 것을, 까마귀는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다섯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네 사람이 같이 나왔읍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사람이 모두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안심한 듯인지, 랍 속으로 날아 들어갔읍니다. 제 아무리 영리한 까마귀일지라도

5와 4의 분간이 서질 못했던 모양이지요.

우리를 사람이 아주 이렸을 때에도, 생을 확실히 깨닫고 생을 세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동생이있으면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사람 아닌 동물들에게 생을 생각할 힘이 있을까요? 대머리 있는 새 모르지마는,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주 이렸을 때 처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

○

“영숙아, 이돈 2만 5천원은 선생님과 생도들이, 너의 입학 을 축하하느라고 보내는 돈이다. 이 돈으로 곧 입학 수속 금을 내도록 하여라. 기한이 언제까지지?”

하시고 결몽에 끔직한 먹 글씨로

입학 축하금

이 영숙님에게 쓴 두툼한 봉투를 내주신다.

“내일까지예요.”

“응, 내일까지야. 그럼 오늘 일찌기 나가서 입학 수속해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숙이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이 되어 모기 소리 만큼 한

마디 하고 교장실을 물러 나왔다. 직원실 여러 선생님들도 영숙이를 보시고 미소를 띄우는 것이, 다행히 여기서는 듯하였다.

○

영숙이는 다섯째 하학종을치고 곧장 이층으로 올라왔다. 6학년 4반 반장 오복희를 만나려는 것이다. 오늘도 뒷걸 운동장 포푸라 나무 밑에서, 매미들이 요란히 우는 것이 음악 같이 들리고, 인왕산에서 바람이 더 환층 시원스럽고 힘차게 불어 온다.

영숙이는 전혀림 가만가만 노래를 부르면서, 인왕산 위를 동동 떠가는 흰 구름을 바라본다.

“영숙언니, 또 무슨 걱정이

있우?”

뒤에서 복희가 명랑한 웃음을 띄우면서 뛰어 온다. 영숙이는 덩석 복희를 껴안을 듯이 복희의 두 손을 힘있게 잡았다.

“복희야 고맙다.”

한마디 간신히 전네고 눈물이 나와서 고개를 돌린다.

“언니 별소릴 다하우.”

복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기하고

“언니 오늘 입학 수속하러 가요.”

하고 영숙이 팔을 잡아 다닌다.

영숙이와 복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리고 두 소녀는 매미 우는 소리를 유쾌한 행진곡처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떼어놓는다. (끝)



동백꽃 향기로운

# “다도해”란 어떤 곳

—학술조사대에 참가하고—

보도반 강 후 원



(거문도의등대)

옛날에는 귀양살이로나 갈 줄 알았던 야독한 남쪽의 다도해!

이 글은 울여름 조선 산악회에서 보낸 다도해 학술 조사대의 보도반원인 강 선생님이, 14일 동안 섬에서 섬으로 다니며 보고 들은 재미있는 일을 적은 일거의 한 토막입니다. 외로운 섬에서 바다와 싸우며 우리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겨레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아글을 읽어 보십시오.

8월 10일 주포에서 삼천까지 조양환이란 배에 몸을 싣고, 서남쪽 후산도로 떠나가는 하오 오후, 7시간만에 후산도에 벽에 다달아 배 안에서 잤다.

8월 11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절터라는 곳에 내렸다. 우선 첫 눈에 띄는 것은 해녀들이다. 여기 저기 물 위에 휘둥박을 띄워 놓고, 잠수복(물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에 불안경을 쓰고, 꼭꼭에 맞춰 부는 듯한 들기줄은 휘파람을 불어 가며 세파란 바닷속으로 물망 거리는 모양은 어느 한 세상에 온 것 같이 야릇하게 보였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진북, 해삼, 소라, 미역 따위를 따내오는데 이는 여름이 한철이다.

산 기슭을 걸노라니 발알간 부스럭 소리가 나며 “엄매”하고 이미소가 송아지를 베리고 뛰어나온다. 여기는 소에게 고삐를 매지않고, 그때로 몇때로 산으로 다니며 풀을 뜯어 먹게 놓아 기른다. 소뿐이 아니라 이

곳에는 무서운 짐승이 없고 고양이조차 없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베리고 해가 저물도록 담 놓고 다닌다고 한다. 물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경치와 이야기는 정말 평화와 자유의 마을로 온것 같다.

이 섬의 집은, 모두 지붕보다 높게 튼튼한 돌 담을 쌓았는데 이것은 바람이 세어서 지붕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의같이 바람막이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까닭이다.

8월 13일 후산도를 떠나 홍도로 왔다. 바닷가의 바위가 비죽비죽 기이하고 모하계 솟아올라 마치 해금강에 온것 같은 느낌이다. 이곳에는 풍란(楓蘭)이라는 풀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지못본 기이한 꽃이다. 다



(산에서 나와서 쉬는 해녀들)

지 흑산도로 와서 잤다.

8월 14일 하태도에 와서 묵었다.

8월 15일 오늘은 정부수립 1주년 기념일이다. 남쪽 바다 외로운 섬에서 이 기념일을 맞이하는 느낌은 또한 유별은 바가 있다. 하태도를 떠나 가가도로 왔다. 홍도와 비슷하게 가압철벽이 뽕 둘러싸고 물이 깊어서 배에서 내리기에도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섬은 물에서 100마일이 떨어져있어 여의사람은 여간해서 와보기 어려운만큼, 세상에서는 마도(魔島)라고까지 불리운다. 인구는 200호에 1,400명이 살고 있으며, 산이 너무 가팔라서, 산위 동네에서 아배를 내려다보면 바르발일모리서퍼런 바닷물이 출렁거리어 지리드빌 지경이다. 항리(項里)라는 동네에는 뒷간도 없어 매우 더럽고 아직도 원시생활상태이다. 학교도 없는 이 섬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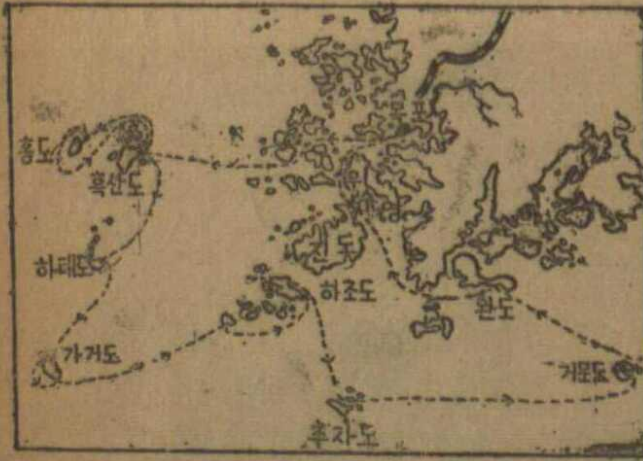


(거제도 대리에 사는 어린이들)

려서 부러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복 따위를 깨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대리(大里)라는 마을에 가서 놀랄 것은 두견을 쓴 사내아이들이 여파문명어나 나왔다. 여기서서는 부모는 물론이요, 제 불이만 죽어도 어린아이까지 두견을 쓴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에 외양목(도강 새기는 나무)이 뽕 둘러싸서 섬 밖으로 많이 나간다고 한다. 병원이니 약국도 없어서 울여

맘이 심해지는 관제로 죽시 떠나야겠다는 선장의 말에 좇아 할수없이 되절어 떠나게 되었는데 미처 일평이 배에 나오르기 전에 물결이 거동치못사나워 어쩔할 바를 몰랐다. 이때에 동네 어머 젊은이들이 나와서 과도 때문에 섬거슴에 매지 못하는 중선(큰배에 발린 작은배)을 불속으로 들어가서 뽕 짝 들어 언덕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자 과도가 들어오는 틈을 와서 청년들은 어찌에 중선을 매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바다에 띄웠다. 이야말로 성난 물결을 두려워 않고 싸워 이기는 믿음직한 바다의 아들의 세찬 모습이다. 우리 일행은 그를 젊은이에게 서울에서도 얻기 어려운 다이아몬드 따위의 여러가지 귀중한 약 몇만 원어치를 내주었다. 그들 중에 애꾸눈이가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허공자



동네마다 강습소를 하나씩 두고 공부시킬 때는, 대개 한 강습소의 정도 수가 20-30명 가량이요, 그것도 거의 사내뿐이요 계집애는 별로 없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계집애는 이

름에도 이럴로 죽은 사람이 많다고하며, 이 고장의 토질은 수종다리일때 우리가 다닌 섬중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었다.

8월 17일 이 섬에서 3일 동안 머물렀으나 별안간 풍

풍 인자하던 그 순박한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심한 뱃멀미가 번적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때는 비바람과 거센 물결을 박차고 꺾꺾한 밤바다를 달린다.

**3월 16일 거차도에** 네리 점심 먹고 다시 하조도로 향하였다. 물결은 어제와 달라 잔잔하다. 이 섬은 물과 그다지 멀지 떨어져 있지 않은 탓인지 아이들이 흑산도에서처럼 피하기나 달아나

지 않고 따르며 어쩔지 발달된 도시(都市)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3월 18일 일찍이** 하조도를 떠나 친구들 위그 두명이 솟은 제주도의 한라산을 멀리 바라보며 주자도에 다달았다.

이 섬은 제주도 북 제주군에 딸렸으며, 사람 사는 섬 4개, 사람 안 사는 섬 32개가 있다. 인구는 약 5,000명이고, 국민학교가 삼주자, 하주자 두군데 있는데

모두 배우려고 몰려서 조그만 섬에서도 전니와서 기숙해가며 공부를 한다고 한다. 겨울에도 일기가 그리 습지 않아서 학생들은 맨발로 통학을 한다고 하며, 눈도 그다지 많이 안 올랐던 터 실영 오더라도 곧 녹아버린다고 한다.

이 섬은 산이나 거습이나 토질(土質)이 관조악들로 되어서 락을 붙이 매우 작다고 하며 만일 저녁달을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떨어져 산 곶방 찾아볼은 전물(溜水)도 먹을 지경이었는데 요즘은 수도가 놓여져서 물

걱정은 면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많이 나는 물결은 멀리인데, 어떻게 잡으려하니 밤에 배위에 1,000쪽이나 되는 밝은 불을 켜서 물속을 비치고 북을 툭툭 치면 수천수만의 멸치떼가 모여드는 때 이것을 큰 그물로 건져내는 것이다.

**8월 21일 저녁에 거문도로** 떠났다. 거의 거문도 근처에 다달았을 때는 별빛만 깜박이는 밤중인데 저멀리 수백 수천, 아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땡강, 노랑, 하양 가지가지 빛깔의 불

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나. 여기 거문도의 등대가 또 스란히 밤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때 이 등대를 보존하느라고 노력하셨다는 이 섬 면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한층 더 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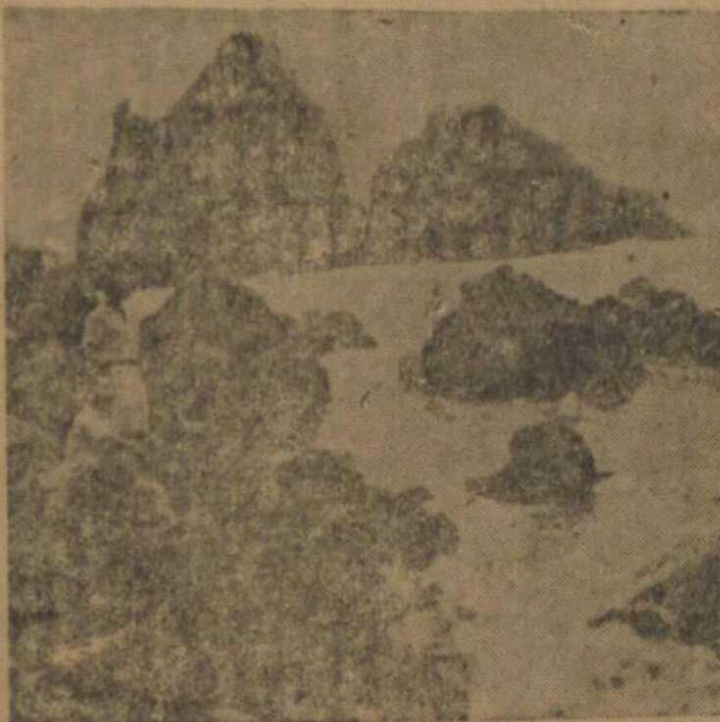
이 섬은 전에 일인이 살았던 탓인지, 작은 섬안이 전기며 수도의 시설이 있고, 원통기모 어둠을 만드는 제빙소까지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같은 섬이면서 저 가거도와 얼마나 왕정되게 물리는가.

이 섬 뒷산 중턱, 줄이 우거진 곳에 지금부터 64년전(단기 4218년) 영국 해군 사령관 하밀톤 중장이 동양 함대 10여척을 거느리고 왔다 갔다는 기념비석이 쓸쓸히 있는데 영국에서 우리 나라에 첫 발을 들여 놓았기 바쁘게 이 거문도였던 것이다.

**8월 22일 거문도에서** 알트르드 오는 길에 해녀들의 견복 따는 광경을 촬영 사진으로 남기고, 여러 백가지의 식물로 경치가 아름다운 주드를 거처 함도에서 묵었다.

**8월 23일 14일 동안의** 바다와 섬의 생활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수영과 진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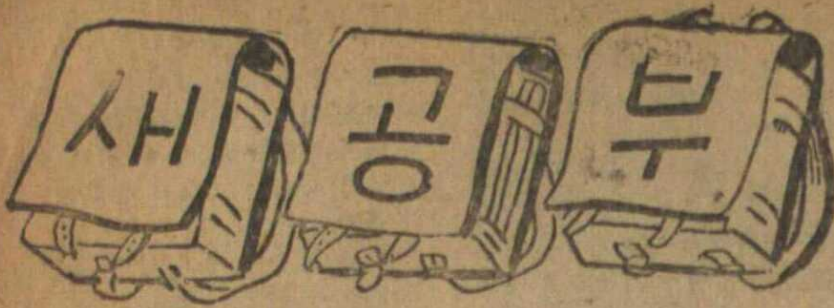
여기는 지금부터 약 350년전(단기 3830년) 이 순신장군께서 겨우 20여척의 배로 130척이나 되는 왜군을 울금목에서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여 크게 이기신 곳이니, 다섯자 담뿍으로도 이 땅의 저매를 불붙이 건져신 이 순신장군의 기록하신 공적이 350년후 오늘에도 새삼스러이 지나는 뱃손의 머리를 숙여오르게 한다. 목포에 다달으니 하오 3시 10분. —끝—



(가거도 해변의 풍경)

이 바다 위에 하늘이 있다. 참으로 그림으로도 옮길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뿔 불이 나고 물이 터져 저녁부터 밤새도록 고등어, 갈치 따위를 잡으러 나온 고깃배의 불들이라 한다.

바다로 다니는 때에 등대의 필요함과 고마움을 느낀 것은, 이 거문도의 등대가 처음이다. 캄캄한 밤중에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 그러나 다른 곳의 등대는 못쓰게 된 것이 많은 때 이 까닭은 해방후 우리동포의 손으로 망가지른 것이 많다



(지도) 동덕 여자 국민 학교 교장

윤 태 영

**문 제 (3)** (시간 20분)

◎ 문제의 목표

이 번에는 한 가지 물건을 잘 알아서 바른 판단(判斷)을 내리는 힘을 보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만을 고르는 힘,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연달아 생각나는 힘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답을 하는데 있어, 그릇 생각을 하면 옳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높은 힘을 찾아보는 것이라, 앞 것을 잘생각하여 대답을 할 것입니다.

◎ 설명

앞에 있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특히 그 것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 ) 표 속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두 가지만 골라서, 그 글자 밑에 — 줄을 그어 놓시오.

◎ 보기

- 사람.....(머리, 모자, 물, 돈, 옷)
- 바다.....(강, 고래, 물, 배, 조급)

- (1) 목자(꿀, 양, 막대기, 전모, 칼)
- (2) 동물굴(종유석, 혼련원, 명반석, 땅석, 외원소)
- (3) 복합 산성(창의문, 세검정, 태고사, 나무, 물)
- (4) 울퉁 선생(학문, 정치, 한글, 매장, 도산서원)
- (5) 개미(꿀, 진흙물, 슬기, 날개, 집)
- (6) 간드(두만강, 해탄강, 일타오거우, 만주, 고려)
- (7) 은조왕(오이 "烏伊", 동부여, 나정, 서소노, 하남우리성)

- (8) 사모국(백제, 은조왕, 혁거세, 양산, 부여)
- (9) 신라의 시조와 서울(주몽, 은조, 비류, 혁거세, 경주)
- (10) 하남우리성(비류, 먹치흙, 백제, 은조왕, 부여악)
- (11) 고구려의 첫 번 기경(요동, 현모, 낙랑, 창해, 살수)
- (12) 고구려 태조왕이 품은 것(요동 태수, 낙랑 태수, 낙랑 한인, 태방 한인, 황해도)
- (13) 황게로 태왕이 백앗은 땅(낙랑, 태방, 부여, 요동, 속군성)
- (14) 근조고왕이 차지한 땅(마한, 북만주, 금관국,

(문) 추울 때 오줌을 더 많이 누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 오줌은 몸 속에서 쓸데 없는 것을 쫓는 것인데, 이와 똑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땀이 있습니다. 즉 땀과 오줌과는 대체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더울 때 땀이 많이 나면 오줌이 적게 나오고, 추울 때 땀이 잘 안 나면 오줌이 자인 많아집니다.

**소년 상식 문답**

다. (추울 때에도 피부 가죽에 있는 명구멍으로부터 거의 알수 없을만큼 조금씩 땀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문) 잠꼬대는 왜 나타나?

(답) 꿈을 꿀 때에, 어떤 생각이 어찌디가 말을 하는 신경을 전드리어, 그 때문에, 모르

는 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높은 산은 해에 가까운데 여름에도 땅 위보다 추운 까닭은 무엇인가?

(답) 겨울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로 햇빛에 쬐인 땅에서 받아들여지는 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는, 땅의 공기에서 열을 속하는 면적이 적어서 받아들

수축성, 팽창)

- (15) 신라가 천 번 키전 일원(낙랑, 팔갈, 백제, 지금 경상 북도, 경상 남도)
- (16) 불교 전의 종교(유교, 회교, 기독교, 다신교, 배천교)
- (17) 고구려에 불교를 가져온 승(이차돈, 소문, 이불탄, 순모, 아도)
- (18) 신라 전통할 때의 칼난 신화(북조자, 마라난타, 이사부, 거칠부, 이차돈)
- (19) 갈매 번 살수 식음(을지문덕, 내 호아, 양양, 주 나훈, 동태)
- (20) 백제의 종신(김 유신, 소 정방, 솫재, 성증, 제백)
- (21) 신라의 유명한 왕(의자왕, 성왕, 보정왕, 태종, 무열왕)
- (22) 고구려가 말한(연개 소문, 남생, 남전, 김모잠, 이 근평)
- (23) 삼국의 종교의 유명한 종(해자, 태연, 보장왕, 고종, 이 문진)
- (24) 삼국의 유명한 공예(이두문, 광조시, 광개로대왕의 능비, 병영종, 첨성대)
- (25) 몸소 빛을 내는 물건(달, 책, 바닷물, 전등불, 촛불)
- (26) 암체(달, 태, 촛불, 연필, 전등불)
- (27) 조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탄소, 수소, 기계, 필라멘트, 물)
- (28) 빛이 곧게 나가는 성질을 안 까닭(○문구멍을 통해 들어온 햇빛, ○마분지 두 장의 구멍을 통하여 본 빛 ○그늘이 안 생기는 것, ○눈이

있는 까닭, ○해가 있는 까닭)

- (29) 거울이 되스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유리인 까닭, ○편편한 까닭, ○넓은 까닭, ○햇빛이 먼 비로 빛이 되나간다, ○거울을 떠난 빛이 눈에 들어온다)
- (30) 빛이 한 각도로 들어쓰아 반대 쪽으로 같은 각도로 되스는 물건(책상, 책, 연필, 거울, 잔잔한 물위)
- (31) 빛이 곧게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거울, ○반질반질한 사기그릇, ○유리그릇, ○불 속에 든 물건, ○굴방[暗室]속에서 불그릇 속으로 들어오는 구멍을 지난 햇빛)
- (32) 빛의 성질(○빛에는 물건이 안 보인다, ○한 물질 속에서는 곧게 나아간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안 뒤인다, ○물건에 닿으면 되스인다, ○어느 때든지 빛의 나아가는 길이 같다)
- (33) 빛이 지나갈 수 있는 무명체 (나무, 물, 양철, 물, 유리)
- (34) 불무명체(유리종이, 물, 유리, 물, 양철)
- (35) 반무명체(종이, 부연유리, 유리, 나무, 물)
- (36) 일곱 가지 빛살[光線] 밖의 빛(초록, 빨강, 파랑, 남빨강살, 남보라살)
- (37) 옷, 이불 같은 것을 별에 피는 까닭 (○달리 피는 것, ○소독, ○더욱게 하려는 것, ○먼지 불떨려는 것, ○남에게 보이려는 것, ○옷감 빛을바래게 하려는 것)
- (38) 남보라살의 힘(○살갓의 양분을 만드는 힘

기는 열이 적은 데다가, 기류가 세어서 공기가 뚝뚝해질 틈이 없으며, 공기가 온도를 간직할 힘이 약합니다. 해와 거리는 가까우나, 밤이 넘기는 열을 못 얻어서, 평지보다 공기가 차고 습합니다.

(문) 무서울 때 열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소름이 쭉 끼치고, 털이 비껴 일어섭니다. 털은 워낙 피부 속에 심어 있다 싶이 한 것인데, 그 뿌리로부터 피부 표면에 걸쳐서 한줄기 심줄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느른해 있다가, 놀라면 그 심줄이 오므타지는 바람에 털 뿌리를 잡아다려서 곳곳해지는 것입니다.

(문) 남비나 솥의 밑창을 닦으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남비나 솥 밑창이 까맣게 그슬린 것이 보기 싫다고, 이것을 말짱히 닦는 사람이 있으나, 남비나 솥이 반짝거리면, 솥이나 정작에서 올라 오는 열을 빨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속의 끓이는 물건에 열을 전하는

○따뜻하여진다, ○병균을 죽이는 힘, ○갈 때 뜨는 힘, ○빛이 좋아하는 힘)

- (39) 무지개가 서는 때 (○개인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흐린 날, ○비 온 뒤, ○여우비 오는 때)
- (40) 햇빛이 일곱가지 색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무지개가 서는 것을 보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프리즘을 대보고, ○일곱 가지 빛을 불린 쟁이를 돌려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 (41) 렌스의 종류 (○불룩한 것, ○오목한 것, ○편평한 것, ○동그란 것, ○울퉁불퉁한 것)
- (42) 렌스를 응용하여 만든 기계 (만리경, 사진기, 거울, 유리창, 유리 그릇)
- (43) 현미경이 발명된 후에 알아보게 된 물건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큰 것을 그대로 잘 보게 되었다, ○식물의 세포를 보게 되었다, ○큰 것을 작게 보게 되었다, ○전염병의 병균 같은 작은 것을 보게 되었다)
- (44) 눈을 보호하는 물건 두 가지 (머티얼, 살갓, 손, 눈썹, 눈꺼풀)
- (45) 조금만 멀어도 잘 못보는 눈의 아픔(원안, 볼보기눈, 정안, 근안, 줄보기눈)
- (46) 나라(임금, 법률, 입법의원, 백성)
- (47) 발명(기계, 학문, 연구, 특허, 고안)
- (48) 분업[分業] (성냥, 일, 제조, 농속, 나누어 한다)
- (49) 기선(돛대, 승객, 수중기, 키, 항로)
- (50) 뱀(독, 혀, 발, 개구리, 뼈)

## 10월치 문제의 해답

- (1) 이씨 조선의 임금. (2) 윤민정음. (3) 풍통설. (4) 합금(合金). (5) 광년. (6) 양(羊). (7) 인류. (8) 확인증. (9) 단군의 다섯 가지 업적. (10) 한울님의 아드님. (11) 조선의 나라. (12) 위만이 망한 뒤에 한인(漢人)이 세운 고을의 하나. (13) 삼한의 하나. (14) 한인(漢人)이 세운 고을. (15) 상고의 종교. (16) 암채. (17) 항구. (18) 고구려의 장수. (19) 우리 나라의 큰 산. (20) 비행기. (21) 종교. (22) 바수질하는 물건. (23) 우리나라 땅. (24) 의사(義士). (25) 나라. (26) 대륙. (27) 별. (28) 무명재. (29) 불무명재. (30) 철석. (31) 렌스. (32) 증유식. (33) 렌스. (34) 방해석. (35) 모양을 알려려는 말. (36) 광석. (37) 전라북도. (38) 세계의 세계. (39) 30억. (40) 20억 원. (41) 공업. (42) 140종. (43) 습부. (44) 과학. (45) 햇빛. (46) 프리즘. (47) 같은비. (48) 역비. (49) 같은 비. (50) 역비. (51) 역비. (52) 비례 되지 않음. (53) 역비. (54) 4:2:3. (55) 6:4:3. (56) 석탄. (57) 백성. (58) 젖을 먹고 사는 동물. (59) 새 운동. (60) 이순신 장군. (61) 섬. (62) 우리 나라 도(道). (63) 서술. (64) 연합국. (65) 동맹국. (66) 타는 물건. (67) 먹는 물건. (68) 철도. (69) 바다. (70) 소재 기구. (71) 강(江). (72) 산. (73) 삼국. (74) 고구려 첫 임금. (75) 신라 서술. (76) 전쟁 기구. (77) 압박. (78) 해방. (79) 우리 나라. (80) 면양.

데 가외의 시간과 열로가 들게 되어서 매우 불경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닥이 까맣면, 열을 많이 빨아들이므로, 빨리 풀게 됩니다. 요즈음은 남미나 솔을 아예 깔 때부터 까맣게 칠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 문제로 너무 두껍게 그슬르면, 역시 열을 빨리 전하지 못합니다.

(문) 눈이 많이 오면 풍년 들 징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탄) 공기 속에는 식물이 발육 할에 없어서 아니 될 산소가 불려 있는데, 눈은 이 산소를 많이 지닌채 땅 위에 떨어져, 눈과 밭에 스며 들어 비료를 삼아 줍니다. 게다가 눈이 많이 내면 해는, 농사를 해치는 벌레들과 그 알들이 죽는 수가 많고, 눈

이 많으면 자연 서리가 적어서, 서리의 해를 덜 받게 됩니다. 서리는 식물의 뿌리 밑을 일구어서, 영양을 빨아들임을 예방하지마는, 눈은 흙을 전드려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수분으로 식물의 뿌리를 추겨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 농사가 풍년 들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 어디가 틀렸나?

아래 4개의 그림을 얼핏 보아서는 이상한 곳이 눈에 띄지 않지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 한 개에 한 군데씩 틀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따뜨리지 않고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5페이지)



## X(엑스)선

X(엑스)선이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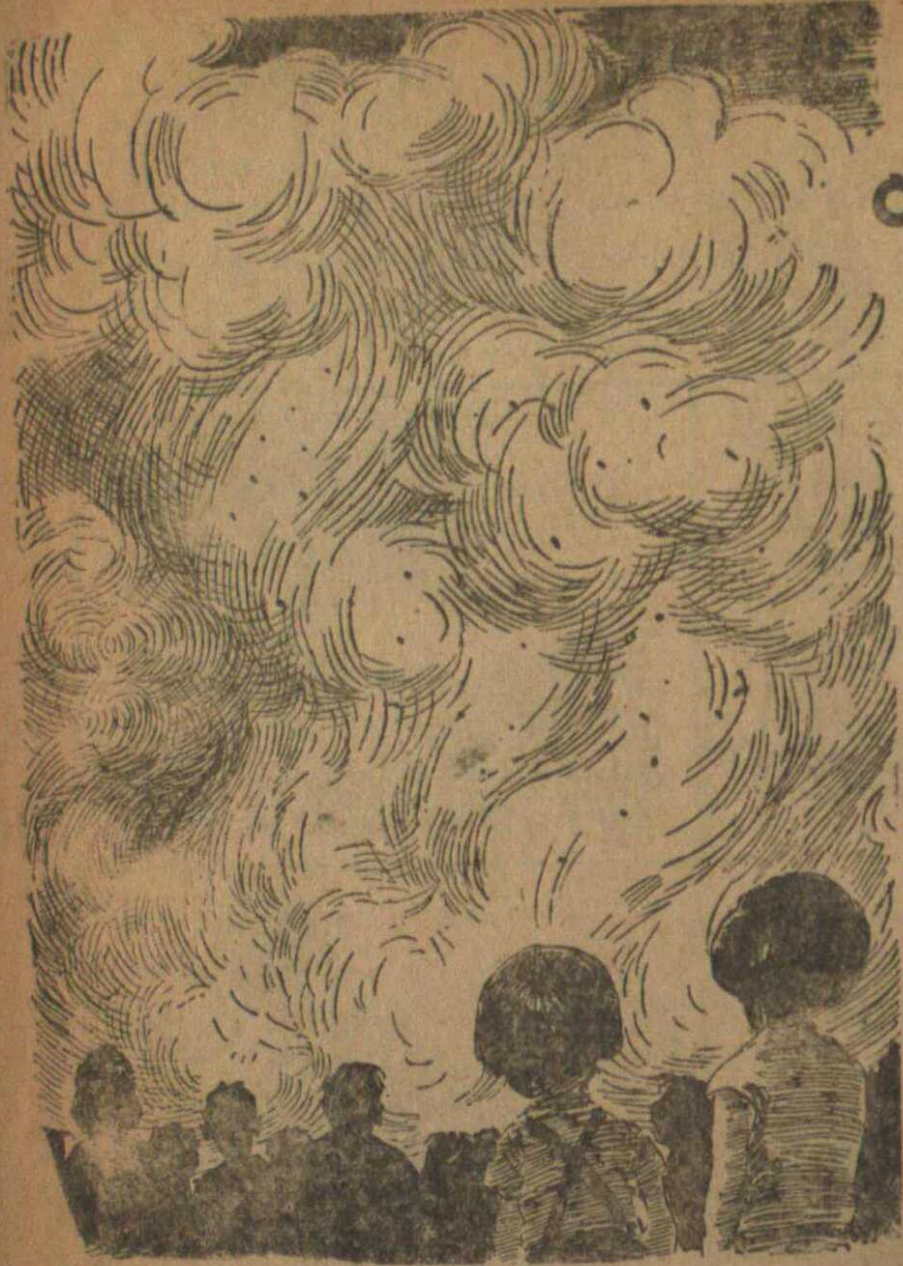
1895년에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상한 방사선이며 렌트겐선이라고도 불러.....

뼈나 금속 같은 것을 뚫고 가는 대개 비쳐 볼 수 있다. 말야

그리고 네 바지 주머니에 나의 안면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나 말야

# 이름 없는

## 정 인 력



(3)

“너 지난 달에 두 장타기 문제 했니?”

“그럼, 다달이 내는 데 두 한 번 두 안 뽑혀. 오빠는?”

“난 저어, 문 안에 살 적에 한번 뽑혔어. 이 번에 두 어디 내보까?”

“이런 문제 어려워, 나 좀 가르쳐 줘, 응?”

“그래.”

회미한 등잔불 밑에서 머리 물 맞대이고 갑주와 옥순이는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친 남매 같이 사이가 좋아 보였다.

아니, 남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아니라, 갑주 자신도 가끔,

—옥순이가 내 동생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 때면, 마음이 조똥해져서 갑주는 불안감 주위가 짙아지는 듯 싶어,

—그렇지만 좀 까불어가 봐서 틀렸어.

속으로 병그레 웃어보는 것이다.

갑주도 뜻하지 못했으나, 그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던지, 그는 무심코,

“까불이!”

이렇게 입 밖에 내어 증얼거리고 말았다.

“누가?”

옥순이는 둥근 눈을 더욱 둥글게, 크게 뜨고 갑주를 쳐다보았다.

“응?”

“날더러 그랬지?”

옥순이는 웃으며 눈을 흘겼다.

갑주는 잠간 어리둥절하는 듯 하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부지중 증얼거린 말을 옥순이가 타내는 것이라 깨닫고,

“으응, 난 뭐라구…… 하하하.”

한바탕 웃음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 별들 (3)

그림 정 현 웅

그러나 갑주가 새 옷을 걸  
우기 전에 그 무서운 폭음이 이  
방 안에까지 들려 왔던 것이다.  
이어, 번갯불이 번쩍하듯 시  
릴전 불길의 창 밖을 화안하게  
물들이더니, 그것이 점점 밝아  
지며 하늘을 찌를듯 퍼져 올라  
가는 것이 섯눈에 띄었다.

“무슨 소리까?”

갑주가 눈이 등그래지며 귀  
척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달려  
가더니,

“애, 옥순아, 불 났나보다!”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디?”

옥순이도 꼬르르 창 옆으로  
달려오더니 약 소리를 지르며,  
“오빠, 학교에서 불 났나 봐  
!”

“참 학교 쪽이로구나, 가 보  
자!”

갑주는 옥순이 손을 잡아 끌  
고 집을 뛰어 나오며,

“갑주야!”

뜰 앞에 나와 계시던 아버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갑주야, 옥순이 두 이리 와!  
여기서 봐두 싶진 불텐데, 가  
긴 어딜 가!”

갑주는 주춤 발을 멈추고,

“아무대두  
안가요. 저  
다리 세개  
지만……”

“다리 세개  
지구 어디  
꺼지구, 위  
태헌데 갈  
거 없어.

복세 통에  
다치거나  
하면 어떡  
하련. 저것  
짜타!”

울타리 너  
머로 아버지  
가 가리키시

는 동네 큰길 쪽에는 어느 틈  
에 들끓어 나왔는지,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이 꼭 차있었다.

앵앵앵……하고 사이렌 소리  
가 들려왔다. 사고가 난 것을  
알리고, 청년단원을 동원 시키  
려는 사이렌이었다.

갑주와 옥순이는 하는 수 없  
이 발을 들이켜 아버지 곁으로  
나란히 걸어 왔다. 울타리 너  
머로 내려다 보이는 동네는 아  
까까지의 평화스러운 동네가 아  
니었다.

직접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  
지는 않았으나,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물끓듯 뛰끓는 동네 모습  
이 무섭도록 환히 내다보였다.

개를 건너 학교 쪽에서는 여  
전히 불길이 하늘을 질렀고, 시  
커먼 연기가 장마때 구름 모양  
으로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갑주와 옥순이는 동시에 몸

## 지난달까지 대강 이야기

서울에 불어 있다고는 는 소리가 나더니, 무  
하지마는, 여기는 시골티 서운 불길이 하늘을 찌  
가 나는 문밖 동네다. 들쭉한 큰 폭진이 일어났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다. 이것은 대체 어떠한  
문안의 티끌 속에서 사 일인가. 아이들을 구경  
는 아이들보다 훨씬 자연 을 보면 동네 집집의 어  
의 폐쇄를 입어서, 천진 른들은 맑은 날에 벼락이  
만만하게 휘날고 있다. 나 떨어진듯, 깜짝 놀라  
그런데 어느날 이 마을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의 국면학교에서 영화문 모, 학교로……아아 거  
늘리게 되었는데, 이날 기는 진실로 무슨 지옥  
은 동네 아이들이 다 구 의 구렁덩이와 같이 사  
경을 갖었다. 영화가 환 람과 불결로 들끓고 있  
창 재미나게 되었을 때, 었던 것이다.  
무엇인지 황 하고 폭발하

을 가늘게 떨었다. 전신에 소름  
이 쭉 끼치는 것도 같다. 언해  
물리는 앵앵앵하는 사이렌 스  
려가 풍연히 가슴을 두근거리  
게 했다.

“악!”

하고 불안감 옥순이가 소스  
타쳐 놀랐다.

“왜?”

옥순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  
로 갑주를 힐끔 쳐다보더니,  
“희 희봉이가……학교루 구  
경 갔을텐데……”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당을 가로  
질러, 한길 쪽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였다.

“옥순아!”

갑주도 무심코 두어 걸음 그  
뒤를 따르려다 말고,

“옥순아!”

또 한번 소리쳐 불렀으나 들

있는지 못물었는지, 속눈이는 쓴살 같이 비탈길을 다름절쳐 내려갔다.

(4)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을 딱 감고,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던 세 소년은 사이렌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자 겨우 정신을 차려 가만히 눈을 떠보았다.

눈 앞이 내뺏 길이 확산하였다. 눈이 부신듯하여,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하고 다시 눈을 꼭 감았다.

그 때, 비로소 세 소년의 귀에는 주위의 아우성 소리, 소란스런 발자국 소리, 울부짖는 소리들이 일시에 들려왔다.

자기네들 심벌에 놀라운 위협이 다가 오고 있는 것만은 짐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거기 대비해야 할지, 세 소년은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또 잠간 동안은 그대로 엎드린 채 두그리고 있었다.

“얘들아!”

가만히 상반신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본 종호는,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놓여 있는 처지를 확실히 알아채릴 수 있었다. 큰 일났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자.

“래진아, 운봉아, 빨리……”

종호는 말을 맺지 못하고, 두 동무의 팔을 잡아 끌어일으키더니, 단숨에 개울둑을 뛰어넘었다.

두 동무가 뒤를 따라 오는지

안오는지, 그것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다. 개울로 뛰어내린 종호는 내친 걸음에 개울을 가로질러 정신 없이 물 속을 질택어리고 전졌다.

숨이 턱에 닿아 개울가 풀밭에가 다시 한번 필색 주저앉은 종호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옆을 둘러보았다. 래진이와 운봉이도 리듬지동 뒤를 따라와, 아까 모양으로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또 얼마동안 세 소년은 말이 없었다. 말 없이, 가쁜 숨을 가다듬어가며, 얼떨결 사람같이 개울 건너, 학교 쪽을 넋을 잃고 바라다보았다.

어느 틈에 어디로들 없어졌는지 넓은 학교 마당에 하얀 영사막이 외롭게 서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산기슭으로 새로 지은 교실 쪽에서는 불길의 길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와 널름거리는 불길이 하늘까지 터쳤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 기와 튀는 소리, 기둥이 쓰러져 넘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어림없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근처에 가는 사람이 없다. 마당은 여전히 텅 비었고, 불길은 제 세상인양 교실 전체를 휩쓸려간다. 창이란 창에서 시커먼 연기가 몽게몽게 피어나오기 시작하였다. 불길이 점점 성태감을 따라, 학교 마당은 더욱 밝아지고, 세 소년이 앉아있는 개울 이쪽까지도 더운 김이 불어

오는 것 같았다.

악 소리를 치며 운봉이가 떨며 뛰쳐일어나더니, 뚫어져라 학교 마당 쪽을 노려보고 있다.

“운봉아!”

종호와 래진이도 따라 일어나서며, 운봉이 보는 쪽을 쏘아보았다.

악, 라고 그들도 함께 입을 모아 소리쳤다.

영사막 위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부서졌, 뛰지도 달리지도 못하고, 천천히 개울 쪽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활활타는 학교를 배경으로 구름거리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는, 개울 이쪽에서 보면 마치 불길에 쌓여 리듬지동 해매이고 있는상 싶었다. 그림자 없으면 연기에 숨이 막혀, 몰부림치고 있는듯도 싶었다.

얼른 보기에 그 그림자들은 제집아이 같기도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단발머리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도 같았다.

“희, 희봉인……희봉인 어디 두 갔을까?”

운봉이는 문득 동생 생각이 났다. 그러자, 그 불 속에 쌓여 있는듯한 그림자가 꼭 희봉이 같이만 여겨져서, 운봉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만 것이다.

……옆에 데리구 있을건……

매정스럽게 혼자 쫓아버린 아까의 자기 행동을 커다랗게 꾸우치며 운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입에다 대고,

“희봉아! 희봉아아!”

그렇게 악을 쓰고 나서, 불

탄 눈으로 잠깐 주위를 훑어 보더니 그대로 경중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5)

윤봉이가 새 개울을 전시기 전에, 학교 운동장으로 우무무 물러들어온 사람들은 청년단원이었다.

일제 때, 방공훈련에 쓰던 폼프와 소망기구가, 이런데 소용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한 때는 목총을 들고 학교 주위를 에워싼 후, 경비를 보아, 누구를 물문하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머지 단원들은 일제히 불타는 학교를 향하여 돌진하여 갔다.

그뿐이 아니었다. 학교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다 피난한 줄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눈이 시릴 개가지고 학교를 향하여 불려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말리고, 막고, 쫓고, 돌려보내는 수고도 볼고는 수고에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또 많은 청년단원이 소용되었다.

학교 마당엔 이미 아무도 없는 줄 알면서도 학교 마당 주위를 에워싼 동네 사람들은 짐채로 물러나지를 않았다.

“글세 나오지 마시타니까, 왜들 이리세요? 구경꾼들은 다 피허구 아무두 없어요. 빨리 때에나 가보세요.”

청년단원들이 목이 쉬도록 외쳤으나, 소용 없었다. 자기 가

동요

산골물

권태웅

저기 저 산에  
반짝 반짝 빛나는게  
그 뭇일까요?

(졸 졸 졸 흐르는 고랑 물이죠)

자꾸 자꾸 흐르는  
맑은 산골물  
나름 나름 마시는건  
그 누굴까요?

(땀 뺏기에 숨이 찬 어린 노루와  
양지에서 즐고난 토끼 동무죠)



(그림·한홍택)

죽이, 혹은 등무가, 무사히 그 자리를 피한줄 알았어도, 이번엔 불구경이라도 할 생각인지, 관목 관목을 가로막은 사람의 때는 좀체로 흠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틈엔지, 사람들의 흐름은 골목에서 비집고 나와, 개울 속까지도 점멸하고 말았다. 아까 보다는 좀 침착해졌고, 절서도 정연했으나, 그래도 공연히 흥분한 사람들의 흐름은 여기서 밀리면 저리 물리고, 저기서 쪼개면 이리 옮기며, 제각기 무엇인지 약자지결 떠들어대는 것이다.

그 사람들 틈을 뚫고, 헤치고, 빠져나가며 운봉이는

“희봉아아!”

잠간 발을 멈추고는 한번씩 희봉이를 부르고 나서는 다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이리 저리 달리는 것이다.

종호도 래진이도 어느 틈엔지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운봉이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떠다밀고 떠다밀리고 하면서

“희봉아! 희봉아!”

학교 주위를 한바퀴 돌았으나, 그러나 희봉이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다시 개울 가까지 돌아온 운봉이는 가쁜 숨을 후우 내쉬며, “희봉아, 요 작쟁이가 어디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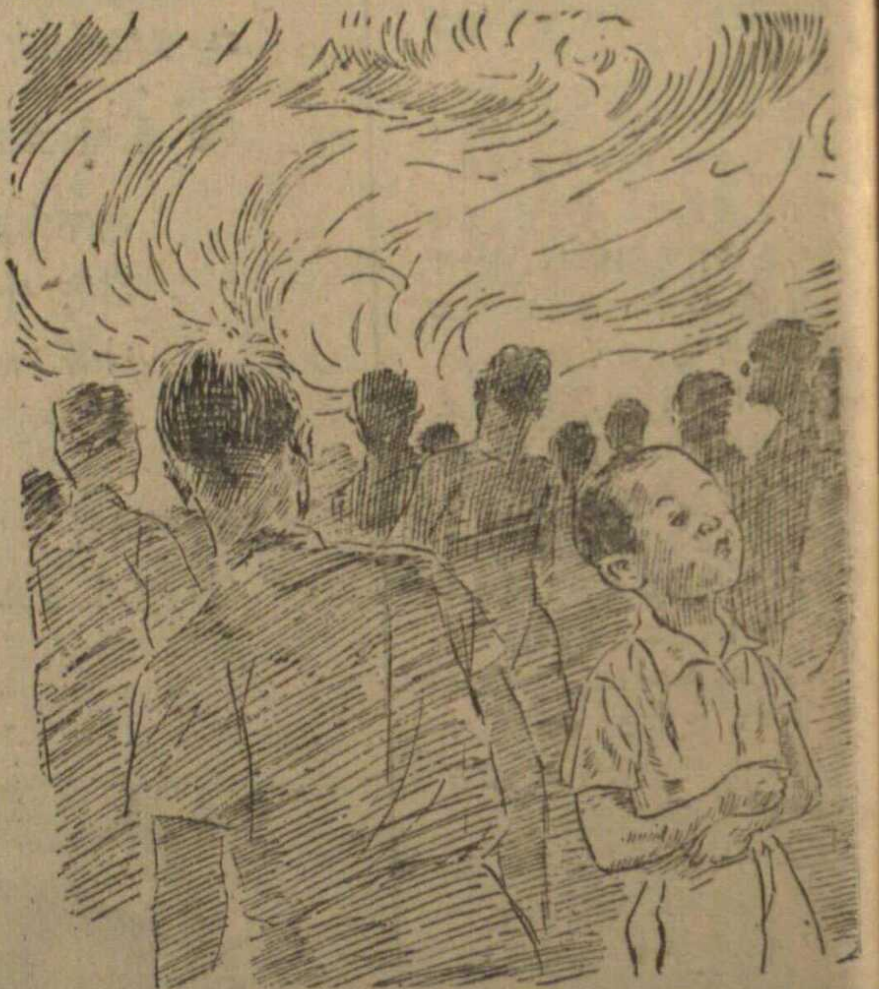
결망적인 목소리로 뇌까리고 나서, 험 없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청년단원들의 맹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은 꺼지기커녕 점점 세력을 더해가는 것만 같다. 마침 바람이 없어서, 불행중 다행이었으나, 손으로 누르는 폼프와 양철통으로 나르는 물 쪼르는 이미 걸잡지 못할만큼 일은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 때였다.

“희봉아, 운봉아!”

불 끄는 청년단원들의 아우성



소리, 구경꾼들의 까닭 모를 고함 소리 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에, 네에!”

운봉이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허둥 지둥 달려가면서, 몇 번이고 언거꾸 대답하며, 그 다음엔,

“아버지이!”

동네 쪽에서 달려오는 지켜만 그림자를 향하여 댈버들었다.

“운봉이나?”

“아버지!”

운봉이는 어린애 모양으로 아버지 가슴에 매어달렸다.

“희봉이는?”

“어디 갔는지……아까 비딤 찾아두……”

“이 자식아, 같이 으구사. 제

동생 어디 갔는지 두 몰라?”

운봉이 아버지는 성을 벌떡 내며 운봉이를 떠다밀고,

“빨리 찾아 봐!”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희봉아아!”

불르는 것이다. 운봉이는 두

것을 생각했는지, 얼른 그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붙렸다.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뒤를 훌쩍 돌아 보았다.

“학교 마당에…… 그지……있는지부 몰라요……”

“희봉이가?”

“네”

“에끼, 이 못난 자식!”

라고 외쳤다.

“죽고 싶소?”

운봉이 아버지는 주춤하고 걸음을 멈춘 후,

“우리 집 아이가……”

“아이구 뭐구, 어긴 아무두 없어요, 빨리 비켜나슈.”

통명스럽게 쓰아붙이며, 길을 터주려 하지는 않았다.

(R)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쓴살 같이 학교 마당 쪽으로, 뛰어 갔다. 운봉이도 바싹 아버지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개울 둔덕 앞까지 이르렀을 때, 목총을 든 청년 한 명이 앞을 가로막으며,

“어딜 가요?”

“빨리 집에 가서 희봉이 왔나 안왔나 보구 와! 난 한 바퀴 더 돌아보구 올레니, 집에 갔다 곧장 이리루 와야 해!,,

“네.”

“빨리 가려니까 뭘 허는거냐?”

운봉이는 대답도 못하고 아버지 옆을 떠났다. 다리가 무겁고, 몸도 마음도 극도로 피곤했으나, 그런것 깨달을 겨를도 없었다.

희봉이가 집에 와 있었으면…… 해죽해죽 웃으며,

오빠 입때 어디 가 있었우? 하면서 맞아 주었으면, 얼따나 반가울까. 지금 운봉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한자지 뿐이었다.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 외일 낮이 있지, 희봉이가 만약 북새 통에 어디 다치거나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혔다. 운봉이는 셋길을 질러, 부리나케 동네를 향하여 달음질 쳤다.

운봉이가 마약 큰 길로 나서려할 때였다.

“운봉아.”

팔을 붙잡는 부인네가 있었다. 돌아다 보니까 래진 어머니였다.

“운봉아, 너 래진이 못봤니?”

“래진이요?”

“그래, 구경인지 뭘지 왔는데……”

“봤어요.”

“봤어? 그래, 아무 일 없니?”

“네, 괜찮어요.”

“어디 있든?”

“저, 개천 가에서 불구경허구 있을 거예요.”

“아이구 다행이로구나, 어떻게 죽이 땀는지……”

그러나 운봉이는 갈 길이 급했다. 래진 어머니 하소연을 들

모 있을 자이는 없었다. 운봉이는 다시 걸음을 빨리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악을 쓰며 마당으로 뛰어올 여간 운봉이는, 텅 비인 집안에 인기척이라곤 없는 것을 알자, 또 한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희봉이는 아직 안 돌아온 것일까? 또는 어디 몹쓸 다쳐서, 어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가셨는 것이나 아닐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껴안고 운봉이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왔다.

두리번 두리번, 길거리에 모여섰는 부인네들을 살펴 보았으

나, 어머니는 안 계시다. 운봉이 발은 제전로 병원 쪽으로 향하였다.

이 동네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병원 앞에도, 역시 사람이 백질척듯 했다. 가족들의 우는 소리 더친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 무엇인지 꾸짖는 듯한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들리는 만큼 더욱 가슴을 선뜻하게 했다.

운봉이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병원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병원 안에도 역시 희봉이는 있지 않았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전등불만이 눈이 부시게 화려한 뿐, 운봉이는 고만 눈물

이 활짝 좋아져 나왔다.

그러는 사이에도, 다리를 걸름거리고 들어오는 사람, 등에 업혀 오는 사람, 코피를 흘리며 엉엉 우는 아이, 의사 혼자서 짙짙 매이드록 부상한 사람들이 연달아 들어밀었다.

새 환자가 들어올 적 마다 운봉이는 그리로 달려갔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희봉이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서 그렇게 무작정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운봉이는 드디어 소리내어 울 때, 다시 밖으로 뛰어나와 아버지 제신 곳을 향해서 만음질치기 시작했다.



“년 기집애끼리 다무 가 봐  
!”  
 테정스텝지 스파가 쫓는 타  
 립에, 르루몽한 희봉이는,  
 “딱쟁이, 저리, 캐네니 같이  
 왔어!”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일부러  
 사람 많이 모인 마당 한가운데  
 로 덩석덩석 걸어들어갔다. 오  
 다 윤봉이 눈에 띄이지 않는 곳  
 으르 가자는 것이었다.  
 영자막 정면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루 어른들 뿐이지, 아는 사람  
 이리곤 없었다. 잔뜩 생이 난  
희봉이는 그것을 오히려 다행  
 이다 생각하고, 고개를 수그머  
 덕소곳이 영화 시작되기만 기다  
 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 흥미도 없는 만화 영화  
 였다.  
 다음, 미국을 소개하는 문화  
 영화가 시작된지 5분도 못되어  
 서였다. 무서운 폭을 그치고 하  
 늘을 쳐뜰듯한 불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주위의 혼란……  
희봉이는 열댓 사람들이 우무  
 루 일어서는 바람에 영문도 모  
 르고 따라 일어섰다.  
희봉이도 물론 그 무서운 폭  
 음을 못들은 것은 아니었다. 그  
 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희봉이는 창들간에 그것을  
 분간 할 수 없었다. 놀라운 것인  
 지, 무서운 것인지, 혹은 그대  
 로 앉아 있어도 무관한 것인  
 지, 정신이 얼떨떨하여 희봉이

는 그것을 알아채릴 도리가 없  
 었다.  
 그러나, 변한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뛰쳐  
 일어나, 팔뿌리 헤어져 달아나  
 는 바람에, 희봉이도,  
 “엄마아!”  
 소리를 지르며 번쩍 몸을 일  
 으켜,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뛰  
 었는지, 저도 모르게 출달음걸  
 을 치고 있었다.  
 앞을 더듬어 뛰고, 덜치고 하  
 는 바람에, 어른들 틈에 끼인  
 어린 희봉이는, 무력대고 허우  
 적거리며,  
 “엄마아! 오빠아!”  
 울가방이 되어 소리쳤으나,  
 주위의 들끓듯하는 아우성소리  
 때문에 그 부르짖음은 제 귀에  
 조차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떠다밀고, 뿌리치고, 주먹으  
 로 괄금치로 탁탁 휘어잡고 하  
 면서, 제각기 겨 혼자만 남보다  
 앞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꺾하  
 려는 수리장 속에서, 희봉이는  
 차차 눈 앞이 칼칼해지는 듯이  
 느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따로  
 가야 이 무서운 혼란 속에서 벗  
 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진  
 연 염무에 두지 않은채, 희봉이  
 는 물론이요, 어른들도 사람 살  
 리는데로만, 반 향한데로만 무  
 려대고 뛰는 것이다.  
 키 큰 어른들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희봉이는 앞을 바라볼  
 수 없어, 경황 없는 중에도 터  
 욱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여,

“엄마!”  
 누가 뒤에서 떠다밀었는지, 혹  
 은 들뿌리에 발이 채었는지, 의  
 마뎃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가  
 자빠지면서, 순간 정신이 아찔  
 하였다.  
 큰 소리 한 번 못지르고, 희  
 봉이는 걸 위에 나뉠그라진채,  
 그래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몸을  
 더굴더굴 굴려 사람을 밟길 당  
 지 않는 곳으로 몸을 이끌어갔  
 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그래도 몇사람의 발걸이 어깨  
 를 짓밟고, 허리를 걷어차고, 팔  
 다리를 스치 지나는 것을 어련뜻  
 이 알았으나, 그 뿐,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희봉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계속)  
 불날리봉에 혼자 떨어져 밟히  
 고 체인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희봉이, 목통이 더저모록 부르짖  
 고 찾아 더는 희봉이의 아버지  
 와 윤봉이... 이제야말로 이 소설  
 의 재미 있는 장면이 다음니다.  
 다음을 기다리십시오.

김 향 안 역

## 늑대와 약대

이 책은 늑대와 약대를 주  
 인공으로 하여 아주 재미나  
 지 쓴 동물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소학생 여러분  
 이 기나긴 가을밤에 귀뚜타  
 미 소리를 들어가며 무척 즐  
 겁게 읽으실 선물도 이제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다 한번 읽으십시오.

책 값 100 원

서울, 태평동 2가 81  
 신대한 도서 주식 회사

# 우리 동무 동시집

## 밤 하늘

서울 성북 국민 학교 3년

이 승 영

방석을 펴고 나홀로 앉아  
말그러미 하늘만 쳐다보니,  
점푸른 밤 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

부채를 저으면서  
쳐다보니,  
점푸른 밤 하늘  
엔 별들이 말  
뚱말뚱



## 가을

전북 완주군 우적 국민 학교 6년

황 의 릉

가을 바람 서늘한 바람 불어요  
나무를 노랑 옷을 입혀보구요.

가을 바람 하늘서 불어 와세요  
나무를 잠자게요,  
나무는 자요.

## 아침

목포 서부 국민 학교 5년

정 재 학

동쪽 하늘이 환히 맑았다  
밥 짓는 연기는 하늘을 지나고  
새들은 울어댄다.  
찌찌구 찌찌구 찌찌구  
농부는 벌써 밭에 나와  
공녕칼을 손바주고 있다.  
이쪽 초나무에서 새가 운다.  
찌찌구 찌찌구 찌찌구  
어더로 날아가 버린다.

## 편지가 되어 봤으면

서울 협성 국민 학교 6년

이 소 선

나는 나는 편지가 되  
어 봤으면  
우편 배달 가방에 들  
어 앉아서  
내 맘대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니  
나는 나는 편지가 되  
어 봤으면.



## 뽑고 나서 중 박 영 총

☆말의 힘

말뚱말뚱과 초롱초롱의 말이 아름답다.

☆가시

나무를 잠자게요—라는 말이 재미있다.  
이 생각을 좀 더 널리 생각하면 더 좋  
은 노래가 될 것이다.

☆이침

아침을 사생하는 것도 재미 있다. 사생  
을 하고 보면 절로 그속에 아침의 따

스한 기분이 어린다.

☆편지가 되어 봤으면

재미 있는 생각..... 이마 꺾이에 우  
표학지를 붙여서 조그맣고 네모 반듯한  
편지가 되어 봤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건축가(建築家)는 누구?

### 심 의석(沈宜碩)선생

어머분은 "유·엘" 이라고 하는 국제연합(國際聯合)에서, 우리 나라에 보낸 한국위원단(韓國委員團)이란 것을 아시겠지요. 신문에서 보통 "한위" (韓委)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인데 이 "한위"가 어디 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덕수궁(德壽宮) 속에 있는, 커다란

천 돌맹이로 만든 집—이 집을 석조전(石造殿)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 속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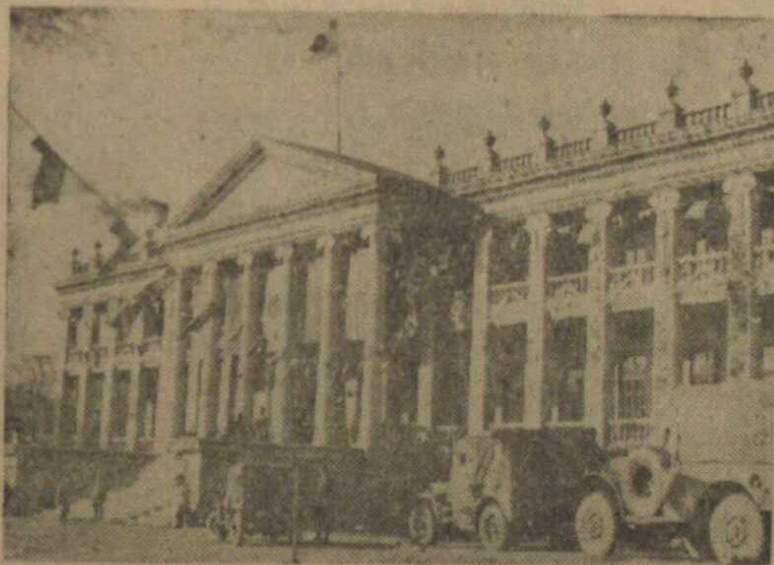
이 석조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된 서양식 건축입니다. 이 집은 고종황제(高宗皇帝)께서, 그 아드님 되시는 영친왕

(英親王)—지금 동경에 있는 이 은(李根) 씨—를 위해서 지으신 집인데, 지금부터 50여년전인 1897년(丁酉)에 시작해서 3년만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집은 영국사람으로 그 당

시 탁지부(度支部—지금으로써면 재무부(財務部)) 고문으로 있던 브라운씨(조선 이름은 백탁안(柏卓安))가 설계라 감독이라든, 도맡아보게 되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 서양건축에 참배한 사람이 심 의석(沈宜碩)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그 당시 우리 나라 건축(建築) 토목(土木)계의 제일인 자이어서, 나라에서 하는 큰 건축물 지고 이 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 석조전 짓는비도 관제하게 되었는데, 서양 건축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브라운을 따라 다니는 동안에, 자연히 배우고 계지게 되어, 그때 오직 한 사람 밖에 없는



(덕수궁 석조전)

서양 건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심 선생은 서울에서 출생한 분으로, 지금 살았으면 백살 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대궐안에 들어가 선공(繕工)이라고하는 집 짓고 고쳐

고하는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이 분이 남기는 큰 건축물로 지금 어머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종로 담글공원 속에 있는 "관모정"이라고 하는 큰 정자와, 또 광화문 네거리 동북(東北)모퉁이에 서있는 기념비각(記念碑閣)이라고 하는 큰 전각이 있습니다. 모두 아름답게 잘 지은 집들이 아닙니까. 두 전물이 다 우리 나라 근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이 밤에 지금 시립 도서관(市立圖書館) 중로 분관이 있는 사물 골목으로 부터 남쪽으로 나가서 청계천(淸溪川)에 이르는 개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물교(鐵物橋)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개천을 품고 다리를 놓는 큰 역사를 맡아한 사람

이 역시 심 선생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심 선생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큰 건물들을 도맡아 지은 분인 동시에, 또 서양식 건축도 맨 처음으로 배우고 실지로 지은 우리나라 토목건축계의 최고 선배입니다.

석조전은 결은 영국식으로 지은 것이지만, 속 장치는 불란서식으로 극히 진아

(典雅)하고 또 화려합니다. 비록 설계와 총감독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건축에 참가해서 역사하는데 기여하고, 또 그 건축법을 이해해서 훌륭한 큰 전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심 선생이 선각자(先覺者)가 되신 공적입니다.

# 동화 샤르망 왕자

☆ 전창식 번역 ☆

☆ 르푸랑스 · 뒤 · 보몽 지음 ☆



작자소개……이 재미 있고도 유익한 동화는 르푸랑스·뒤·보몽 부인이 지으신 것입니다. 부인은 서기 1711년 프랑스의 유명한 코트 “부양”에서 태어나 17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일생을 어린 동무들의 교육을 통하여 바쳤고, 또 재미난 동화를 남겨 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샤르망이란 이름을 가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겨우 열여섯에 아버지를 잃어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귀하게만 자라서 모든 일에 머리를 쓸 줄 모르고 노는데만 팔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냥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샤르망에게 한 사람의 늙은 충신(忠臣)이 있었는데, 그이 때문에 제멋대로 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충신을, 먼 고장으로 보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샤르망은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길러주고 또 오랫동안 나라일을 잘 보살펴준 상으로서 총독(總督)에 임명한다.”

이렇게하여 샤르망은 그 늙은 충신을 먼 고장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해 버렸습니다.

늙은 충신이 옆에 없게 되자 샤르망은 밤낮을 노는데 소일했습니다. 매일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어느 날 샤르망은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털이 흰 룡 눈빛 같이 흰 사슴을 만났습니다. 그 흰 사슴은 목에 금으로 만든 목포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샤르망은 떠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저 혼자 사슴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슴은 샤르망을 기다리는 듯 하다가, 다시 달아나고 또 기다리는 듯 하다가 달아나고 하였습니다.

샤르망은 안락까운 심정으로 사슴의 뒤를 마냥 쫓았습니다. 그리다가 어느 틈에 어두어졌습니다. 사슴의 모습도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샤르망은 숲 속에 혼자 남겨져 갑자기 쓸쓸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러자 어찌서인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샤르망은 저도 모르게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커다란 성 앞까지 다달았습니다. 고운 음악 소리는 그 속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샤르망을 맞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명하니 있는 샤르망 앞에 여쁘기 한량 없는 젊은 색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브레글로와르입니다.”

구슬을 굴리는 듯한 음성은 예쁜 얼굴에 못지않게 아릿하였습니다. 샤르망은 기쁨에 몸을 떨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여쁜 공주님! 당신과 같이 아릿다운 여인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원충전대 공주여! 제 공주가 되어 주실 수 없습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환혼(求婚)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을 택해야 좋을지 당장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삼년 동안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분 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로 시집을 가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차르망은 이 말에 기운이 솟아나서 기뻐했습니다. 브레글로와르에게 구혼을 하였다는 것도 찬명의 왕자를 만나보니 더욱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자는 자기보다도 더 잘생기고 또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아쿠솔류였습니다. 어느 커다란 나라의 젊은 주인이었습니다.

이튿날 차르망과 아쿠솔류 두 왕자는 브레글로와르 공주와 아침밥을 나누곤 길을 떠났습니다. 두명의 왕자가 숲속을 한참이나 걸자니 훌륭한 대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온통 금과 은 투성이고 대리석 기둥엔 보석을 수놓은 호사스런 궁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두 왕자는 반길을 그리로 돌면서 대궐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브레글로와르 공주가 거기 있는게 아닙니까. 어제는 꽃을 단 청소환의 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하여, 오늘은 온통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오셨던 예전보다 이 집이 더 훌륭하

지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 공주는 두 왕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면 이 공주는 브레글로와르 공주의 동생인 포스글로와르로서 얼굴은 형과 똑같으나 허영심이 많고 셈이 많은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제 언니를 찾아보고 돌아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농침스레 속여서 제 손아귀에 넣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쿠솔류 왕자는 이 포스글로와르 공주를 브레글로와르 공주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오늘 만난 공주가 더 어여버 보이는데, 더 영리해도 보이고.”

그러나 차르망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투성이의 의복을 입어서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난 청소하게 차린 어제 공주가 훨씬 더 좋아.”

이렇게하여 두 왕자는 서로 마음 속에 포근한 애정을 지닌 채 갈라져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르망은 제 궁전으로 돌아가자 멀리서 보냈던 충신 쌍세프를 불러서 의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이는 모르는게 없으니가 필시는 저 공주의 일도 알고 있을거야. 어디 다시 불러다 의논을 해 보아야지.”

이렇게 하여 충신 쌍세프를 불러서 한사십이 떠났습니



다. 쌍세르는 왕자의 부름을 받고 즉자로 출발하여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쌍세르는 왕자의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 왕자님! 다시금 궁전으로 돌아 오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주들에게 대하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나중의 공주는 브레글르와르 공주의 동생으로 얼굴은 똑같으나 허영심이 많고 셈 많은 공주입니다. 그리고 브레글르와르 공주는 어디나 무례없이 훌륭한 공주입니다. 왕자님은 어떻게 하여서는 브레글르와르 공주님을 맞이하여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주의 마음에 들려고, 혹은 전쟁을 일으켜 남의 나라를 빼앗고, 혹은 또 나라와 백성은 내버려 둔 채 제 명성만 떨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브레글르와르 공주의 마음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님! 내말 대로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는 동시에 저 아릿다운 공주를 왕후로서 맞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왕자님!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임금이 되려면 첫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히 남의 나라만을 탐내서 전쟁을 일으켜 많은 백성의 피를 흘린다면 이것은 좋은 정치라곤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른 일 옳은 말 망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힘 쓰십시오. 그러면 공주는 자연 왕자님의 공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나라를 침범한다거나 돈을 쳐들어 궁전만 잘 짓는다거나 또는 호강을 할 양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임금은 포스글르와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르망은 이 늙은 충신의 말대로 이행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단신하게 맡기고선, 충신 쌍세르와

만 둘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실지로 보고자 함에서였습니다.

왕자는 온 나라를 부두 돌아다니며,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칭해다 좋은 일 자리를 청탁 했습니다.

이렇게하여 왕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실화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을 닦고 벼를 만들고, 젊은 사람에게 일 자리를 늙은 사람과 병자에게 잔자리를 주었습니다.

차르망 왕자가 좋은 일만을 힘써온지 어느덧 이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나라는 무척이나 깨끗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차르망 왕자는 쌍세르에게 물어 봅니다.

“이따하면 브레글르와르 공주를 맞으러 갈 수 있겠어요?”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왕자님은 성을 잘 내시는데 그걸 없애셔야 됩니다. 남은 것은 이것 뿐입니다.”

왕자는 충신 쌍세르의 말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마저 뜻을 이루게 되



었습니다.

하르망 왕자가 공주와 약속한지 삼년째 되는날, 왕자는 충신 쌍세르 만을 거느리고 공주의 궁전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중에서 아부술류 왕자를 만났는데, 그는 자기가 싸워서 이긴 나라의 왕자들을 죄물로 묶어서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부술류 왕자는 포스글로와르의 궁전으로 향하고, 하르망은 브레글로와르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 앞에 다달으자 브레글로와르 공주는 반가이 하르망 왕자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 당신제전 충신 쌍세르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하르망 왕자와 브레글로와르 공주의 결혼식이 즉시로 거행하여졌습니다. 하르망 왕자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공주를 맞아 무한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한편 아부술류 왕자는 포스글로와르 공주의 애교에 넘쳐



는 집대를 받아, 더욱고 결혼식을 거행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잘 들여다보니 절에는 분을 잔뜩 발랐으나 얼굴엔 주름살이 밍게 끼고 이빨

도 빠져있는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을 중지하고 슬픔과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끝)



# 백두산 이야기 (7)

## 산상의 꽃밭을 찾아서

홍종의

### 1. 꽃밭과 식물대의 구성

백두산의 별칭지는 무두봉(無頭峰)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숨이 답답할만큼 깊은 숲속을 뚫고 나왔으나, 무두봉에서 부터는 약간의 잔 솔밭이 있고 나서는 나무라고는 하나 없이 기화요초(奇花瑤草)의 고산식물(高山植物) 꽃밭이 즐편하게 눈앞에 버터지는 것이다. 키가 크면 한자 가량, 적으면 겨우 두세치 가량의 땅에 높은 줄과 나무가 제각기 아담하고 청초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노랑 꽃으로는 물싸리나무, 산 양귀비, 노랑 만병초, 과랑빛은 매발톱이나 비르봉 송담꽃, 분홍 빛은 뿔삼꽃나무, 바위구절초 같은 것들, 그 수효는 이루 세일 수 없을만큼 많다. 그중에서도 함없이 애련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노랑 산양귀비와 매발톱이라 할것이다. 바로 전날의 비로 걷은 뒤에 날 맑고 바람도 잔잔한 날, 멀리 백두산의 웅대하고 정중한 상상봉을 우뚝터보며 산비탈도 엷비듬한 꽃밭 가운데로 또 평지에서는 볼수 없는 무늬가 찬란한 나비를 따라 올라

가거란 우리나라 최고봉의 무인 지경에 들어 섰다기 보다는 평소에 즐겨 놀던 정다운 뿔동산에 오른듯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무성하던 삼림(森林)이 어찌서 여기 서부터 그치고 말았느냐? 이는 지대가 높아 가면서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여름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불과 이삼주일이나 한달 미만이요, 그 다음은 내내 눈과 얼음이 짙어 쌓이는 추운 겨울만 계속하는 때문에 식물도 종류에 따라 산밑으로부터 상봉에 이르기 까지 변화가 많고, 곤충(昆虫)도 산의 높이와 기후 성편에 따라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높은 산에 가면 이더나 이더한 변화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를 백두산의 형편으로 설명한다면,

▲높이 600메터에서 약 1,000메터까지가 하부침엽림대(下部針葉林帶)라고하여, 잣나무 등속이 많다. 여기는 험무암(玄武岩) 지대이고,

▲다시 그위로 1,500메터가량까지는 중부(中部) 침엽림대라고하여, 잣나무와 가문비나무가 많고 지대는 부석(浮石 또는 輕石)으로 되어있고,

▲그 위의 2,000메터까지는 상부

(上部) 침엽림대라고 하여 가문비나무가 대표적으로 되어있고, 지대는 화산 재(灰)등의 화산에서 뿜어 나온 것(噴出物)이 쌓인 곳이다.

▲2,000메터 이상이 고산 식물의 꽃밭을 이루는 곳인데, 지대는 알카리 조면암(粗面岩)으로 되어있다.

대방 이상과 같이 백두산의 식물대(植物帶)가 구분되고 있는 때, 산이 높아 갈수록,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키가 점점 적어지고 통게로 가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산의 높이에 따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산이 낮을수록 키가 우뚝 높은 나무가 무성하는데 이것을 교목(喬木)이라 하고, 산이 높을수록 키가 작고 밀이 다복한 나무가 많은데 이것을 관목(灌木)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평지에도 많다. 즉 쌍두나무 같은 것이 그것인데 원체 높은 곳에 가면 평지에서는 상당히 키가 큰 교목도 잘 자라지 못하거나와, 원체 키가 작은 종류가 많은 것이다. 그러고 위에 설명한 백두산 "실무대"를 침엽수로 표시했지만, 그 가운데는 활엽수(闊葉樹)도 또한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백두산에 가장 많은 나무 종류를 말한다면,

▲침엽수에 낙엽송,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향나무 등속이고,

▲활엽수 중의 (1) 교목으로는 뿔나무, 고제목, 상수리, 오리

나무, 백화나무 등이고, (2) 관목으로는 매꽃이, 들죽, 등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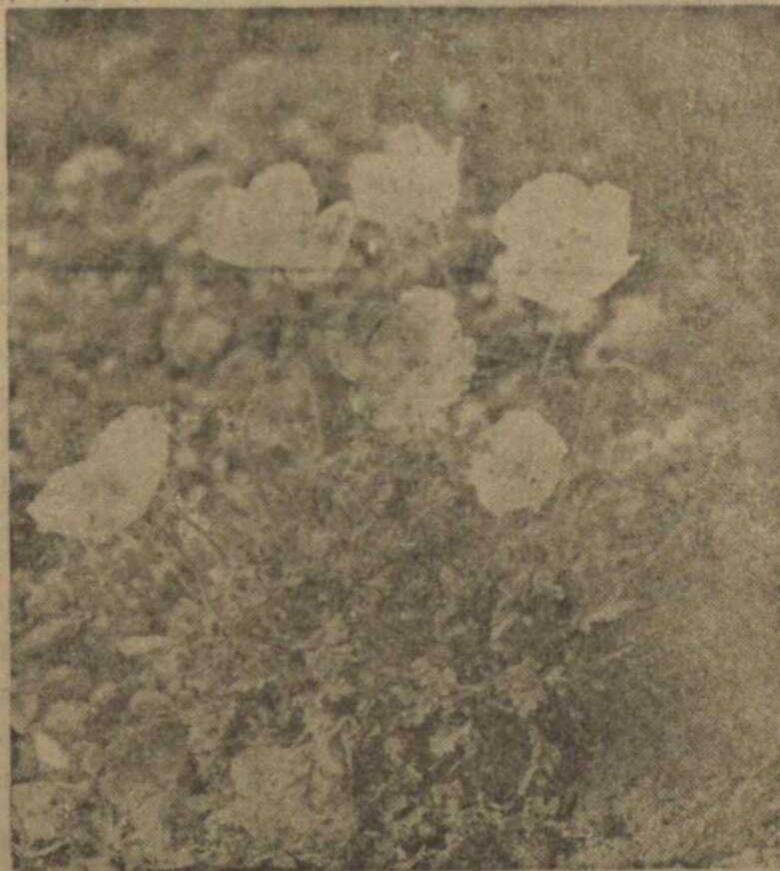
## 2. 부석층의 탄화목 유래

무두봉까지는 숲이 무성하고 그 위로부르는 나무라고는 땅에 붙어서 자라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위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일까? 이점은 백두산의 화산이 터져 나온 역사를 살피는 때 대량의 흙미 있는 관찰이 되는 것이다. 백두산에 바람이 세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백두산에는 대체로 서북풍이 심할 때 한 번 바람을 만나면 침막을 날려 버리는 것은 보통이고, 사람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기어다니야 한다고 하는만큼, 바람이 얼마나 세다는 것은 매강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숲이라면이야 큰 염려없

지만, 나무 한 포기 없는 산 등어미로 불려오는 고산 지대의 바람이란 참말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봉우리도 동그레하고 특히 부석층(浮石層)의 산기슭은 바람에 밀려와 마지 바닷가의 불결이 밀려가는 것같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또 한 두 포기의 낙엽송 나무가 서있다는 것도

바람때문에 나무 가지가 모두 한 편 쪽으로 쓸려온가 그렇지 않으면 뿌리째 넘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아 바람이 세기 때문에 산등에는 나무가 부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그런 몰랄 바람에 시달리면서도 나무가 한 두 포기씩 아예 서 위로, 위로 자라올라 가고있다는 사실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상태



(백두산에 된 노랑산상귀비 꽃)

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현저한 사실은 삼림이 끝인 삼림한계(森林限界)에 얼마 올라가지 않아 부석층이 케인 곳에 보면 그옛날 어느때인가 거기에 자라고 있던 한 아담 가까운 나무 그루가 숯(木炭)이 된채로 서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1897년에 모시아의 탐험가

도 방주다 몽고에서나 40년 동안 돌아 다녔다는 안헨트 박사가 처음 발견했던 탄화목(炭火木)인 것이다. 이것을 나 자신도 실지로 보았는데 대뿔지렁(大鰐脂鯨) 바로 못미처서 직경(直徑) 유절은 내지 한자가 넘는 것이 수십그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탄화목이 오늘날 남아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곳에도

삼림이 상당히 무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탄화목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옛날, 즉 백두산의 역사도 보면 가장 최근이요 맨 나중에 화산이 터져서 뜨거운 화산재와 부석이 내리 떨어지고 그 속에 나무들이 그대로 타서 숯이 되고 말았던 것이 위에 땅이 깨지면서 지상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발견된 탄화목은 낙엽송이나 분비나무, 향나무 등 속으로 추측되고 있

는데, 이러한 탄화목의 자취도 미루어서 백두산이 맨 나중에 폭발된 것은 어느때쯤이었느냐 하는 것이 조사되고 있다.

대개 화산이 터져 나온 그 뒤에 나무가 자라지면, 대략 180년가량은 걸려야 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자라는 나무가 낙엽송이요, 그 다음이 분비나무나 향나무 중

류가 나고 다시 사수대나무며 백화나무등의 활엽수가 나고 그뒤에 잣나무가 나고 또 그뒤에 낙엽송이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다 자라서 석고 도재로 다른 종류의 나무가 나서 임상(林相)이 뒤바뀌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현재 백두산목의 낙엽송들은 적어도 150년 내지 200년은 묵은 것이므로, 백두산이 최후로 폭발되었다면 우선 380년 가량은 되었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청(淸) 나라 때 강희(康熙) 16년(서기1677년)에 왕의 명으로 어떤 대신이 백두산에 올라 갔던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도 삼림이 대단히 무성했었

다고 했으니, 만일 380년전 가깝게서 백두산이 폭발했다고 하면 270년전인 그때(1677년)는 아직 삼림이 무성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보다 전에 폭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380년에 270년을 가산한 650년이 후에는 폭발이 없었을 것이므로 백두산의 최후 폭발은 적어도 650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록에 나타난 바로는 이조 선조(李朝宣祖)30년(서기1597)에 삼수(三水) 지방에 큰 물이 날아와 냇물이 흐렀다고 한 것이 있고, 또 숙종(肅宗) 28년(서기1702)에 부령(富寧) 지방에 재가 날아 왔다고 했으나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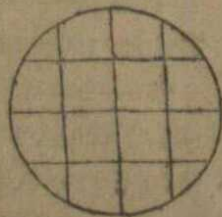
년 내지 300년 전에 폭발이 있었다고 하면 현재의 삼림상태로 보아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고, 만일 폭발이 있었다 해도 백두산의 큰산이 아니고 그 부근의 어떤 적은 산이 폭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화산이 여러번 더져서 현무암(玄武岩)이나 부석등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에 수목은 밑에서부터 무성하여 점차로 삼위로 벌어 올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삼림이 무성한 뒤에도 몇번인가 또 더져 나온 중에는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도 또 더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계속)

( ) 칙칙 박사 할아버지!  
이 번은 좀 어려운데...아마 못 풀실걸. 경희두의 돌기둥이 몇 개이지요? 쉬운 문제만 주시다가 이러워서 절절 매시는군요. 전차표 보낼까요? 가서서 보고 오시게... (서울 북성교한 인수)

(답) 러허. 가보구서 세어 보면야 누군 못알까. 칙칙하면 다 아니까 칙칙 박사가 아닌가? 48 개. (칙칙 박사)

(문) 할아버지 그간 감기를 치 않으셨습니까? 추운 날에 땀좀 내 보십쇼. 이 그림과 같이 끈은 줄 여섯으로 원을 16 간에 나누었는데 누가 보더니 22간까지도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사



람 말이 참말입니까? (경기도 연안교 장 천순)

(답) 자네들이나 감기 조심하게. 이거야 어디 어려운가, 이데르그 리면 필기 야닌가.



(칙칙 박사)

(문) 칙칙 박사 할아버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울 서대문교 이 종렬)

(답) 솟, 에헴. (칙칙 박사)

(문) 칙칙 박사님은 어느 문제든지 잘 주신다지요? 쓸 때는 소용 없고 안쓸 때는 필요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자네들 문제가 너무 쉬

워서 내 머리가 베껴지는군 그때, 그것은 비문제 아니라 모자 넣는 겁이 아닌가? (칙칙 박사)

(문) 칙칙 박사 할아버지가 칙칙 대답을 하신다기에 찾아 왔습니다. 자 준비 하세요. 별 건 괴물이 하얀 종이만 먹는 것이 무엇이지요? 에헴. (서울 서대문교 임 광규)

(답) 에헴은 자네가 할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네. 그건 우리말로 우체통, 영어로는 포스트. (칙칙 박사)

(문) 칙칙 박사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한가지 연구했지요. 하하하 벌써부터 머시네. 자, 갈 때는 아니 가고 아니 갈 때는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빨리 갈 길이 바빠니다. (서울침례교 임 응식)

(답) 아무런 갈길이 바빠도 지금 기차가 지나가니 다 가거던 건너가게. 그만하면 알겠지요? 그건 기차 철도 건너 가는 거 아닌가. (칙칙 박사)





울은 소리

선생님 "우리나라 어디서 살이 제일 많이 나는지 아는 사람...?"  
 수남이 "네, 경상도에서 많이 납니다."  
 옥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옥들이 "팔은 눈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선생님과 생도들 "하하하."  
 (서우 효제교 박 승섭)

돼지와 꼬리

북남이 "네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드는지 아니?"  
 풀풀이 "글쎄... 넌 아니?"  
 북남이 "그럼! 꼬리가 돼지를 흔들지 못하니까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지 뭐야."  
 풀풀이 "...?" (서울 수송교 김 의우)

조금만 고쳤으면

양복점에서 양복 탄생을 플라 들고  
 신사 "이 양복을 조금 고쳐서 파시지 않으시겠어요?"  
 주인 "네 고쳐 드리지요, 어렵니까?"  
 신사 "여기 불인 4000원이란 정가표를 2100원으로 고쳐 주시요."  
 주인... (이품을 잊었습니다.)

내 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12시를 지나자  
 아우 "야 벌써 내일이 됐다!"  
 언니 "언제든지 오늘을 오늘이라 한다."  
 아우 "...?" (진주 매안동 김 중용)

애독자 아합 상라기

세 문 제



고양이 앞에 열세마리 쥐가 있는데, 이에서부터든지 쥐가 달아나는 쪽으로 세어서 열세째 되는 쥐를 잡아먹고 또 그 다음부터 세어서 열세째 쥐를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쥐를 맨나중에 먹어야겠습니다. 맨먼저 어떤 쥐부터 세기 시작하여야 되겠습니까? 그 쥐의 번호를 적어 보내십시오.

1등 20명.....학용품 한벌씩  
 2등 40명.....좋은책 한권씩  
 마감 11월 20일

발표 "소학경" 1월지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 2기 영보빌딩 아합 "소학경" 편집부

주의 피모록 업서로 보내시고 만일 취척 박사나 다른 작품과 함께 보내시던 업서만한 종이에 답과 학과 학년 이름을 뚜렷히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십시오.

★ 9월치 상라기 발표★

바른 대답과 밝힌 분

(1) 36년 (8) 부르짖다 (11) 조상  
 (13) 단기 (20) 글썽글썽

1등 20명

- 단어선 (서울 영화교 6년)
- 국동진 (서울 제부동 181)
- 김용자 (서울 교동교 3년)
- 김대현 (서울 영화교 6년)
- 김창현 (서울 제동교 6년)
- 원상운 (서울 영화교 )
- 김진하 (경북 제원교 6년)
- 한경우 (서울 누상동 114912)
- 김창학 (부천 소사남교 5년)
- 최낙현 (서울 매동교 5년)
- 권태길 (경남 해성교 4년)
- 박만규 (대전 삼성교 5년)
- 전인중 (서울 매동교 5년)
- 원준지 (서울공무로 5가 1529122)
- 최우호 (성환교이동분교 6년)
- 이동락 (경북 포항교 6년)
- 김예희 (경주 용원교 6년)
- 백진환 (서울 효제교 6년)

2등 40명

- 정래선 (서울 중림교 4년)
- 김대성 (충천 생곡교 6년)
- 박영규 (서울 안산교 6년)
- 조경철 (충주 교원교 6년)
- 이원조 (진주 봉래교 6년)
- 김성숙 (서울 효제교 5년)
- 박한규 (서울 영화교 5년)
- 김우선 (마산 합곡교 4년)
- 이재현 (인천 송림교 3년)
- 송상우 (서울 경동중학 1년)
- 신종배 (인천 상영교 1년)
- 김연호 (서울 남산교 6년)
- 박성재 (서울 노원중교 6년)
- 윤희화 (경북 대구교 5년)
- 성기우 (대전 대동교 2년)
- 김필규 (서울 용인교 5년)
- 이종범 (서울 돈암교 5년)
- 김영자 (충남 서안교 5년)
- 김계선 (마산 회림교 5년)
- 이순운 (서울 교동교 5년)
- 하원경 (서울 금양교 5년)
- 최상욱 (경북 대구교 5년)
- 원홍희 (김포 양천교 6년)
- 김영중 (서울 마동교 5년)
- 정수봉 (서울 광화동 2가 318)
- 차안희 (보령 대교교 6년)
- 김양수 (경남 창녕교 5년)
- 심재희 (서울 중인교 5년)
- 김재근 (서울 제동교 4년)
- 유문서 (경산중앙상업분교 4년)
- 김연희 (인천 송의동 407)
- 최영희 (서울 신당동 234가 105)
- 김민기 (서울 무학교 6년)
- 김용부 (전북 진주교 6년)
- 최광철 (경기 장안교 5년)
- 김승영 (서울 서대문교 5년)
- 김진덕 (서울 세기동 208)
- 한상현 (서울 광화동 2가 222)
- 김정부 (서울 남대문교 4년)
- 김태은 (서울 창경교 6년)
- 삼재홍 (서울 광희교 4년)
- 안광용 (서울 불화교 4년)



☆ 모험 소설 ☆

# 모오구리 (3)

【정글의 소년왕】

기 플 링지 음 · 작 은 들 번 안

## 지금까지의 대장 이야기

여기는 인도하늘을 뒤덮을 듯한 나무가 울창한 정글이다. 이 속에서 사는 짐승들은 버섯이 법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늑대 집안에서 우연히 기르려던 사람의 아들 모오구리는 워낙은 사·칸이라는 법이 잡아 먹으려다가 늑대에게 빼앗긴 아이인 사·칸은 이 아이를 제게로 돌려 보내라고 하고 늑대는 못 돌려 보내겠다고 한다. 그러면 법은 아이를 팔거나 제 밭속에 넣어 버리겠다는 것이요 늑대는 이 아이를 제 사육마복하게 기르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마침내 온 짐승들이 모인 회의(우리에 사회로 차변 국회 같은 모임)에서 토론하기로 되어서 짐승의 나라 법률에 따라 모오구리는 소한 마리와 육승을 바꾸게 되거 늑대의 가족이 되고 말았다.

달로부터 10일이 지난 동안 모오구리는 정글의 법률과 정글의 풍속과 그리고 제 몸을 무서운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사냥할 법 같은 것에 대한 온갖 교육을 포범 바기라 곰 발루에게서 받았다. 사람의 아이로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랐으며 짐승의 풍속에 젖은 모오구리의 상대는 어떠한 것인지……

## 원숭이는 원수다

모오구리는 바기라 잔등이에 선듯 올라 탔읍니까. 그리고는 몸을 흔들거리고, 발뭇금치로 바기라의 발뭇금치란 털가죽을 툭툭 치면서 발루한테 약을 울리는 모양이었읍니다.

“저런, 저런 녀석 봐, 사뭇 날 놀리네.”

곰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바기라에게 향했습니다. 모오구리는 그대로 내뿜어 두고 포범하고만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곰의 말을 듣자하니, 하쉬라는 코끼리는 모오구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법과 새의 암호말을 다 배워 주어서, 모오구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짐승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인제 저녀석이 접낸 것은 드루지 없단 말야.”

하고 발루는 만족한 듯이 배를 문지르며 말하였읍니다.

“허어 내 갈빗대 부러지겠다. 이 조그만 친구야, 케이리 까 붙어쌍누?”

바기라도 만족해하면서 모오구리를 어깨 너미로 쳐다보았읍니다. 모오구리는 제가 켜켜하고 바기라의 털을 주무르고, 또 옆구리를 발로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도, 말했읍니다.

“인제 나는 내 동무들을 데리구 하루 종일 나무위로 뛰어 다닐 테야.”

“네파위가 벌써부리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니?”

하고 바기라가 말했읍니다.

“왜 안 돼? 난 그러구 저 늑은 발루에게 나무가 지나 흙을 막 던져 줄 테야, 난 그놈들 허구 약속했디나!”

모오구리의 이 말이 새 글

나기 전에

“무엇이?”

하고 발루가 악을 쓰더니, 그 큰 손이 모오구리를 바기라 등에서 덤석 움켜 내렸습니다. 모오구리가 곰의 앞발에 눌려서 곱을 쳐다본즉, 곱은 풀이 뽕뽕 나 있었읍니다.

“모오구리야! 넌 원숭이놈 끌러구 말을 했구나?”

하고 발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오구리는 그만기가 질려 아무말도 못하고, 표범도 성이 났나 하고, 발루를 쳐다보았읍니다. 발루 눈은차더차게 빛나며 모오구리를 쓰아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못 엄한 목소리로,

“너는 원숭이놈들과 같이 놀았구나, 벌들도 예의도 없는 무지막지한 놈들하구, 아무거나 막 먹는 후배자식들 하구 함께 놀다니, 이놈아 아무리 어린 애라도 창피를 알아야지.”

하엿읍니다. 모오구리는 곱의 발 밑에서 우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엿읍니다.

“발루가 날 때였을 적에 난 저쪽으로 도망을 갔었지. 그랬더니, 나무에서 원숭이가 내려와서 날 동정해 주었어. 아무도 날 동정하진 않았는데, 원숭이가 날...”

“원숭이의 동정이라니 그런 말도 있나?”

“모오구리” 에 나오는

### 점승 이름

아케라.....투명수매  
 사·칸.....모오구리의 부  
 모를 잡아먹으려던 벌  
 티바귀.....관작할 승냥이

발 루.....모오구리의 선  
생

바기라.....모오구리의 귀

풀 보아주는 표범

카 아.....구렁이

관 .....조끼개

하 리.....코끼리

망 .....박새

찰 우수쟁스였다. 냇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니? 어름 뱀뱀이 차갑다는 말도 있니? 원숭이의 동정이란 말이 어디 당한 소리야?”

하고 발루가 코웃음을 쳤읍니다.

모오구리는 그때도 불평이 남아 있었읍니다.

“그놈들은 내게다 맛 있는 실과를 따 주었다우. 또 나를 안고 나무 위까지 데려다 주었다우. 나는 꼬리가 없는 것만 빼놓고, 그놈들과 같은 종류이라고 하고, 또 머지않아

내가 그놈들 두목이 편타구 그러는데요.”

바기라가 이 말을 가로챈 말했읍니다.

“두목이 있을 턱이 있나!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놈들 말은 모두 거짓말야.”

“아니, 거짓말이 아닐 것 같던데. 날 보구 놀러 가자구 하면서...난 한번도 원숭이 등에 끼워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놈들은 나처럼 두 발로 서는 것을 보았어요. 그놈들은 날 때려 주지는 않아요. 하루종일 같이 놀아 주었어





요. 자아, 날 일으켜 줘요. 이 엉터리 늑은이야. 난 원숭이 하구 놀래야.”

“자 내 말쯤 들어봐라. 이 사람의 새끼녀석아.”

발루의 목소리는 무더운 여름 밤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 정글에 사는 모든 족속의 법률을 네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사는 원숭이들은 떠났지. 왜? 그들은 법률을 찾지 않았다 말이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부랑패들야. 그들은 저희를 말은 없고, 죄 남의 말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다 말이다. 그들은 높다

란 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엿듣고 엿보고 한다. 도무지 비집가기 짝이 없는 놈들야. 그들은 두 목도 없어. 그들은 외우는 재주가 없어. 그리고

게다가 팔 같지 않게, 놈들은 저희가 제일 인척한다 말이다. 우리들 정글에 사는 족속들은 그놈들과 잇살을 어울려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원숭이가 먹는 물을 먹지 않으며, 원숭이가 간질을 견지 않으며, 원숭이가 사냥하는 곳에서 사냥하지 않는다 말이다. 우리들은 원숭이가 죽은 곳에서 죽지 않아! 들어봐라, 내가 오늘까지 한 번이나 원숭이애 걸한일이 있니? 어더말해봐!”

“없어요.”

하고 모오구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루의 말소리가 어찌나 엄숙했는지 수풀이 다 조용했던 것입니다.

“정글의 족속들은 그놈들 얘기를 입에도 올리지 않는다. 생각좀 해봐라. 그놈들은 때가 하도 많고, 나쁜놈들이고, 더러운 놈들이고, 엄치를 모르는 놈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놈들이 좀 욕심이 생기면 정글의 여러 족속과 어울리려 한다 말이다. 그놈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나무열매를 우리 머리에 던진다더라도 우타는 거를 떠보지도 않아. 자, 인제 알겠니?”

이럴 즈음이었습니다. 나무열매와 나무가지에 아직 남아있던 빗물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어 높은 나무가지 위에서, 기침소리, 악쓰는 소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가 연해 들렸습니다.

발루는 태연한 말소리로, “원숭이떼와 사피는 것은 금하고 있다. 정글의 족속이면 누구나 원숭이와 사피어서는 안돼! 알았지?”

하였고, 바기라도,

“금하고 말고. 그렇지만 이번 일은 발루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 것을 미리 네게다 말해 두지 않은 것만도.”

“내가 말을 안했다고? 할 리가 있겠나. 그 더러운 놈들하고, 이녀석이 눈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인가? 원숭이 놈들! 에이 듣기만해도 불쾌하거던!”

이 때에 또 나무가 흔들리며 빗방울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곰과 포범은 모오구리를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발루가 원숭이에 대하여 한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나무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위를 쳐다보는 법이 별로 없으므로 원숭이들과 정글 속속과 길에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원숭이들은, 병들은 늑대 타든가, 다친 법이 타든가, 곱을 발견한 때에는 괴롭게 굴었습니다. 또 꿀갈 짐승들에게, 장난삼아 나무가지나 나무열매를 내던지곤 하였습니다. 또 뜻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악을 써서 소란하게 굴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정글의 속속을 보기만하면, 어디 우리들과 한번 싸워보자고, 놀리고 까짜를 울렸습니다. 원숭이가 죽으면 정

글의 속속들이 늘 다니는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두목으로 모신듯하였습니다. 법률과 예의범절을 차릴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원숭이들의 기억력은 이들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원숭이들이 지금 생각한 것을 정글의 무리들은 나중에 생각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모하다고 저희끼리 좋아했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아무도 그 무리 있는 곳에 갈만한 짐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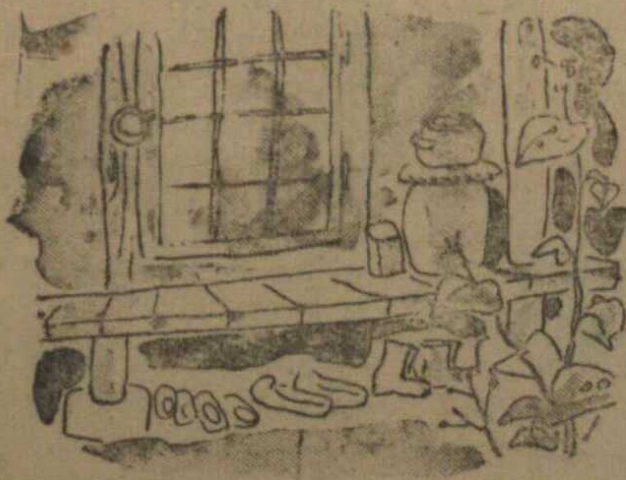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도 그들을 거들며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오구리가 그들에게 놀리 갔을 때에 것처럼 좋아한 것이었으며, 발루가 성이 났을 때 진질이뻔것도 다 그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난하는 것 밖에 하는 일이라고 별로 없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중에 한 원숭이가 신통한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오구리는 사람이니까, 바람을 막도록 나무가지로 벽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오구리를 볼물기만 하면 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숭이들에게

통 요

## 애 기 의 새 벽 윤 동 주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젓 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젓 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그림 · 임 동은)

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오구리는 나뭇꾼의 아들로서, 여러가지 사람의 하는 일을 저절로 타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아무 생각없이, 길에 떨어진 나무가지로 조그만 접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내려다보고,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됐다! 우리들의 두목감이 생겼다. 저 사람의 새끼만 배려한다면 우리들은 정글 속에서 가장 영리한 족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짐승이고 다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여 그들은 발루와 바기라와 모오구리가 걸어가는 뒤를 따라 가만가만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낮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글에 사는 짐승들은 각기 낮잠자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오구리는 발루와 바기라로부터 원숭이가 얼마나 천한 짐승인가를 알고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따지는 원숭이 무리와는 놀지 않겠노라 결심을 하고, 포뿔과 꿀과 나란히 누워 달콤한 잠이 들었습니다.

### 원숭이에게 끌려서

모오구리가 정신을 차려본즉, 그는, 제 팔과 다리를 여러놈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몹시 억세고 작은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나무가지가 제 얼굴을 세세 때리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아 이것이 더저된 일입니까? 모오구리는 높은 나무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발루가 천둥 같은 소리로 부르짖고 있으며, 바기라는 잇발을 까뒤집고 나무에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종다고, 필필 뛰면서 캐캐거리며, 바기라가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만큼 높은 가지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봐라, 저놈이 우리를 쳐다봤다! 바기라가 우리를 쳐다봤다. 정글의 무리들이 우리 재

주에 그만 얻이 빠졌다!”

그리고는 그냥 땡소니를 쳤습니다. 원숭이 족속들이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듯 뛰는 것은, 참으로 무어라고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날센 것입니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가고 언덕을 내려가는 일정한 길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은 땅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땅에서부터 20미터 혹은 30미터, 아니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두 닢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깊은 밤일지라도, 이 공중의 길을 거침없이 다닌 것이었습니다.

원숭이 중에도 가장 힘이 센 원숭이, 두 마리가 모오구리의 거드망을 볼들은채 그대로 7미터 가량 높이의 나무에서 나무로 쫓쫓 뛰어갔습니다. 단일 그들이 맨손이었더라면 그 잡절이나 빠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오구리는 일이 빠지고 험기가 났습니다. 한편 너무나 엄격하게 쥐는 바람에 몸이 재떨이 재떨이하는 것도 관찮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눈을 떠서 땅을 내려다 본즉 여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튀어 날아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공중에서, 선뜻 저쪽에 나무가지에 닿았을 때 흔들흔들 몸이 오묘하 내리타 하고보니, 그만 혼이 떠달아나는가 싶었습니다.

모오구리를 볼들은 두 원숭이는, 그를 안고 무섭게 빠른 속도로 나무에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연해 큰 기침을 하더니 무어라고 신호하는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몸을 한번 위로 소구치면서 이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무 큰 가지에 매어달려, 비르소 그 어마어마한 뿔질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모오구리는 어디까지나 끝이 없는 정글의 푸른 숲을 멀리 멀리 바라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배 꼭대기에서 아득한 푸른 바다를 바라다보는 것과 같

이. 이 때에 나뭇잎과 가지가 모오구리의 뺨을 슬적슬적 때리는 듯하니, 그의 몸은 두 원숭이와 함께 거의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땅에 내리선 것을 보자, 어디서 묻어왔는지 수없는 원숭이백들이 백백거리고 혹은 악을 쓰면서 볼들이 온 사람의 아이 모오구리를 에워싸고 한바탕 물끓듯 소란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모오구리를 데리고 나무가 무성한 숲 사이길을 막 달려갔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마치 나는 새와 같이 모오구리를 겨산고 달리는 원숭이, 모오구리는 어지러워서 험기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질까 두려워하였지만 나중에는 악이 울랐습니다. 이미 그때는 식으니 언덕은 아주 멀리 멀리 떨어져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담에, 조랑이에게 불려 가도 정질을 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오구리는 불뼉러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 사실을 발루와 바거리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

다. 원숭이들이 이 모양으로 빨리 달아나기 때문에 모오구리의 선생들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나무가지 뿐이었습니다.

이때, 모오구리는 군독 하늘 위를 쳐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푸른 하늘 높이 소리개 란이 날개를 딱 펴고, 커다란 동그타미를 그리면서, 무엇 먹을 것이나 없나 하고, 정글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란은 원숭이들이 무엇을 먹고 달리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먹을 것이나 필까 하고 한술 내려왔습니다. (계속)

독자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모오구리는 마침내 그 못된 원숭이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무엇 때문에 잡혀가는지 모르는 관입니다. 매마침 나라난 소리개 란은 과연 앞으로 모오구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줄 것인가? 다음달자를 기다리십시오. (편집부)

작은 물•번 안  
디즈니•그림



장편 만화 소설

## 피노치오

아직 안 가진 분이 계십니까? 두 모 두고 보아보 재미나는 책입니다.

아협 발행

값 140원 (음표 10원)

책사마니 팔고 있습니다



(쇠판이 된 나무숲을 상상한 그림)

# 쓸모도 가지가지 석탄 이야기

최 명 환

석탄(石炭)은 지금부터 까마득한 옛날 몇10만년인지 몇100만년인지 따지기 어려운 그 옛날, 이 땅덩이 위에 백 둘러섰던 커다란 나무 숲이 지구의 변화로 말미암아 땅속으로 묻히게 되어 몇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빛도 검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서 많이 쓰는 숯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이 석탄은 사람의 힘은 빌지 않고 자연이 오랜 동안을 두고 만들어는 숯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석탄을 땅 속에서 파내어 우리 살림살이에 쓰기 비롯된 것은 3000년이 지난 옛날 중국이나 기러사 사람들이있었습니다마는, 요즘과 같이 세우 쓰게된 것은 그다 오래지 않은 옛날입니다. 이 석탄은 대체 무엇에 쓰는것 일까요? 하고 물으면 모두 연료(燃料-떨감)로 쓴다고 하시겠지요. 사실 석탄의 쓸모는 때는 때 있다고도 말하겠으나, 석탄은 때는 때 뿐 아니라 잠깐 논란만큼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대강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거나, 불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거나, 모두 석탄의 힘 아닌 게 없으니 이것은 석탄이 연료로서 대단히 필

요하다는 한가지 보기에 지나지 않지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가지 방면에 이 석탄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장간 앞을 지나 보신 일이 있으시겠지요. 왼쪽에 갈무를 놓고 왼쪽으로 바람을 불며 오른쪽에 흙으로 싸는 화로 속에 가크스름한 숯 부스머기같은 것을 넣고, 그 속에 낫이나 호미를 넣어서 그 숯 부스머기가 과한불길을 내며 발광해 피어오르는대로 불개 말아진 쇠붙이를 꺼내서 모퉁이에 얹어 놓고 망치로 동명동명 치는 걸 보셨지요. 그 숯부스머기 같은 것은 코크스라고도 하고 글탄이라고도 부르는 석탄으로 만든 것인데, 이 코크스는 여러 석탄보다 화력이 세고 연기나 불꽃이 나지 않는 까닭으로 대장간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무들 집에는 가스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가스의 꼬다리를 들고 가스공로에 불을 붙이면 과한 불이 활활 타며 여기다가 온갖 음식을 다 끓여먹을 수 있는 이 편리한 가스도 실은 석탄을 메를트라는 그릇에 넣어서 건조(乾溜)하여 뽑아낸 석탄가스란 것입니다.

이 가스를 뽑아 낼 때 가스불이 함께 생기는데 이 가스불에서

다시 암모니아가스가 나오지되어 맥주를 만든다거나, 얼음을 만든다거나하는 데 쓰는, 물질을 차게 식히는 약물이 됩니다. 또 이 암모니아 물에서 벌 쓰일때 바르는 약으로 쓰이는 암모니아수, 거품으로 쓰이는 유산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최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합성 지붕이나 관장 쇠 따위에 칠하는 끈적거리고 새까만 냄새가 좋지 않은 끈적한 페끼 같은 걸 보셨지요 이것을 타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석탄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 아니라, 이 우습게 보이는 타르가 골막골막 재주를 넘는대로 별별 물건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나무타령이라고 웃에 넣어두면 좀 안덕고 뒷간에 두면 고약한 냄새를 가지게하는 약을 아시지요? 그것의 냄새가 고약하지요? 모양은 바뀌어도 냄새만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석탄이 어 나무타령이 되려면 먼저 벤진이라는 것으로 변하여 이것은 얼룩 때는 기름으로 쓰입니다. 이 벤진이 하얀 나무타령이 되는가하면, 한편 거기다 초산(硝酸)을 섞으면 고편드유(苦扁桃油)라는 향수(香水)가 됩니다. 이 얼마나 재미 있는 일입니까.



과? 아름답고 이이쁜 흰 나무타  
 밍에는 그 모양과 냄새가 남아있  
 고, 끈적끈적한 고점도유에는 나  
 미가 모이들만큼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향수가 되다니……그런데  
 그 향수의 자료가 되는 고점도유  
 에다가 질(質)과 염산(鹽酸)과를  
 작용(作用)시키면—이번에는 구  
 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미닝이  
 라는 물질이 됩니다. 고운 빨강,  
 파랑, 자주빛 물질이 이 아미닝  
 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다가 조산(調製)을 작용시키면, 안  
 차페부링이란 감기약이 되구요,  
 아까 말한 나무타밍에서는 또 촉  
 발약이 되어서 수뢰(水雷) 지뢰  
 화(地雷火)로서 더지면 무엇이든  
 지 켜뜨려 부시는 무서운 힘을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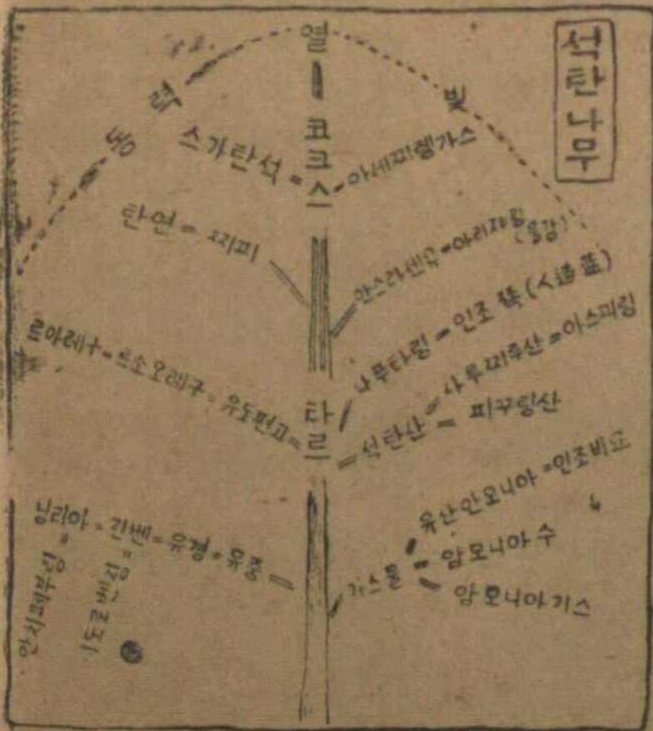
어려분, 이 검은 비결비결한  
 물질이 같은 석탄은 그저 불 때  
 는 데만 쓰는데 알았더니 일도당  
 로 많은 용약이 안되나, 향수가  
 안되나, 고운 물질이 안되나, 무

색은 촉발약이 안되나, 연을 내  
 띠는 감기약이 안되나 참말드 기  
 기 적적하게 재주를 부리는 요술  
 정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뿐이 아닙니다. 석탄산(石炭  
 酸) 이라고 무서운 전염병의 균  
 (菌)을 죽이는 약이 되고, 다시  
 이 석탄산에다가 초산을 섞으면  
 노란 물질이 되기도하고 비구링  
 산이란 촉발약이 되기도합니다.  
 또 술이 썩지 않도록하는 약인  
 사부제부산도 이 비구링산에서  
 만는 것입니다. 담배나 열이  
 있는 병에 쓰는 사부제부산소다,  
 보통 아스피링이라고 말하는 약마  
 워도 다 석탄산에서 모양을 바꿔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  
 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중유(重  
 油)경유(輕油) 휘발유(揮發油)과  
 타진도 석탄에서 나오며 타르에서  
 크레오솔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것은 나무의 썩는 것을 막고, 페  
 병이나 이 아픈데 약으로도 씁니  
 다. 그리고 안스라펠유라는 기름

너, 얼마전까지도 석탄을 그  
 때로만 벨을 일했었는데 그러하  
 니 나쁜 석탄은 연기가 너무나  
 고 경제적으로 봤 때기가 힘들  
 뿐 아니라, 기선이나 군함에 배  
 자연 부피가 많아서 자리를 넓게  
 잡는 배라도 있고 또 부서진 석  
 탄 가루를 말끔히 쓸수 없는 까  
 닭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상등의 석탄 가루에다가 먼저 말  
 한 피치를 섞어서 연탄이란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연  
 탄은 화력이 세고 부피도 훨  
 씬 작아서 아주 편리한 것입니  
 다.

우선 석탄에 대해서 대강 말할  
 하였는데 참으로 석탄이라고 그  
 저 때는 것이러니하고 우습게 여  
 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에는 대  
 강대강 말한 것인데도 이렇게 흥  
 미있으니 질문으로 연구해 보시  
 면 더할층 재미 있는 일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석탄은 미국에서 세  
 계 제일로 많이 나오며, 우리 나  
 라에서는 경양 산동부근에 우리  
 나라 무연탄 매장량 약 15억 톤  
 의 80%가 묻혀있고 함경북도에  
 는 우리나라 무연탄 매장량의  
 80%인 약 5억 톤의 무연탄  
 이 매장되어 있어서 길주, 명천,  
 경성, 희명, 용기 등이 모두 석  
 탄산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열천,  
 삼척에도 상당한 무연탄이 있어  
 지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니 우  
 리 나라의 삼팔선이 두너지는 날  
 우리 공업에 커다란 발전이 올  
 것입니다.



과, 피치도 만들  
 어지는데 안스라  
 셀유에서도 아미  
 자빙이라는 물질  
 이 생기고, 피치  
 는 길바닥을 아  
 스파트로 까는 데  
 쓰이지만 어  
 기에 다시 석탄  
 을 섞으면 연탄  
 (煉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서도 구공탄을 거  
 울에 쓰시겠지  
 요. 이 구공탄도  
 연탄의 한가지입

# 소년소설 타석 만날때 까지



## 장두운지음

철이는 쌀을 씻다 말고 비스듬이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며 풍로에 숯불을 피우고 있는 혁이를 본다. 혁이는 손에 입김을 호호 쏘며 가며 툼툼 부채질을 하고 있다. 풍로에서는 혁이가 부채로 바람을 부칠 때 마다 불뚱이 자꾸만 튀어 나고 있다. 그리고 풍로 안에서는, 거센 불길의 폭 폭 소리를 내며 불어 댕다. 그러면 혁이는 신이나서 호호 손에 입김을 쏘이다가도 잊은듯이 또 부채질을 하며 만의 풍로 안을 들여다 본다.

“혁아!”

“응! 왜?”

혁이는 말고럼이 철이를 쳐다

보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발구타이 시리지?”

“아니.”

“손구타이 시리지?”

“아아니.”

혁이는 설레설레 머리를 내어 쫓는다.

“이것 봐 숯불이 이렇게 화화 퍼 나는데 뭐!”

혁이는 보라는 듯이 또 멈췄던 손을 제발리 눌러가며 부채를 부친다. 정말 불길이 아까 보다는 더 힘 차게 활활 타 올랐다.

“인젠 다 뻘어! 집 안에 들어 와!”

“아냐! 아직 두 열기가 나는

데 뭐.”

혁이는 또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럼 쌀을 마저 씻을테니 이 내 들어 와! 응?”

혁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또 부채질을 한다. 철이는 혁이를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혁이도 철이의 얼굴이 집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따라 빙긋 웃고는 혼자 중얼거린다.

“숯불은 나무 피슬을 잘 알어!”

혁이는 툼툼 불어 오르는 숯불을 볼때,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시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혼자서도 풍

로에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머칠 전만 하여도 혁이는 손수 숯불을 피우지 못했었다. 철이가 일으켜 주면, 혁이는 부채 쥔만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요머칠 동안에 익숙해져서 철이가 거들어 주지 않아도 손수 그렇게 피울 수 있었다.

뜰 앞에서 우하하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혁의 귀에 들렸다. 혁이는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뜰 앞을 내다 본다. 학교에서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국민학교 아이들이다. 거기에는 한달 전 까지도 학교로 갈 뻔 길이 갔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뛰놀던 영식이랑 순이랑 옥이랑 그런 낯익은 아이들이다. 그중에는 다름박질할 때마다 혁이와 일이등을 다루던 성남이도 보인다.

혁이는 벌떡 일어서며  
“애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였으나 어쩐지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성남이가 끼어 있지만 앉았더라면, 하고 혁이는 다시 주춤하고 부채를 쥐었다.

어느날인가 성남이가 빈정거리던 말을, 혁이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이는 학교 다닐 때 보다는 한층 더 으스스하고 있었다.

“너 혁아 왜 학교 안가니? 부모가 되구 싶어서 안가니?”

혁이는 그렇게 놀려주는 성남이런 가만 볼 수는 없었다.

“뭣이 어찌? 아버지가 되원

# ★ 우리 학교 ★ 교원가

## 서울 삼청 국민 학교

햇볕에 반짝기는 앞마당 모래

바람에 춤을 추는 뒷동산 솔밭

산도 맑고 물도 맑고 마음도 맑아  
깨끗해라 우리 학교 삼청이라네

앞 마당 모래만큼 많은 등나무들

뒷동산 솔과 함께 자라는 우리

산도 맑고 물도 맑고 마음도 맑아  
새르워라 우리 학교 삼청이라네

나무는 위로 크고 내는 밑으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 가누나

산도 맑고 물도 맑고 마음도 맑아  
즐거워라 우리 학교 삼청이라네

(윤 석중 지음)

하면 학교 가게 돼! 너 같이 학교 가는척하고 길가에서 줄다 오는 바보는 아냐.”

하고 혁이는 도루 쓰아 주었다.

혁이는 멍하니 앞서거니 뛰서 거니 하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양을 다시 내다 본다.

성남이와 옥이가 어깨를 걸고, 영식이와 순이가 손을 잡고 무언가 말을 주고 받으며 골목길로 꼬부라진다.

혁이는 금시 그애들을 따라

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 가 보기도 싶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어나시게 될까……)

혁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몇번이고 눈 앞에 그려보았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인제 스므살만 자면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리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없이 그리웠다. 그리고 이마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던 아버지의 무

시운 얼굴이,  
눈 앞에서 사  
라지지 않았  
다.

그것은 첫  
추위가 시작  
되어 손발이  
꽁꽁 얼어드  
는 어느날 일  
이었다. 혁이  
는 철이와 같  
이 학교에 갔  
다 집에 돌아  
와서 제재소  
에 다니는 아  
버지를 행길  
로 마중 나갔  
다. 그러나 일  
마 안돼서 인  
터거에 배운  
아버지를 발



견하였을 때 철이도 혁이도 잠  
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눈도 뜨시지 못했  
다. 이마에는 피가 킬킬 흘러  
내렸다. 아버지는 지긋이 미간  
을 찌프리며 간간이 신음 소리를  
내실 따름이었다.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일군이  
인력거근에게 돈을 치르며

“나무를 쪼다가 제재기에 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시켜  
야 킬텐데……”

하고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  
었다.

아버지가 입원한지 며칠이 안  
되서 혁이는 철이와 함께 학교  
가는 발을 끊지 않으면 안되었  
다. 아버지가 제재소에 다닐 때  
는 구차한대로 그날그날을 어떻

게 해서든지 지낼 수 있었고 철  
이와 혁이의 학비는 어머니가  
담배도 팔고 때로는 샅팔래 같  
은 것으로 대어 왔지만, 아버지  
가 입원하신 뒤로는 어머니의  
장사하시는 거나 샅팔래 만으로  
는 먹고살아 나가거에도 어려  
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는 할 수 없이 새간을 팔아 치  
로비를 보충하시곤 했다.

혁이는 두눈에 글썽글썽한 눈  
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다시 풍로  
에 마주 앉았다. 그러자

“혁아! 불이 다 쪼았지?”  
하는 철이의 말 소리가 안으로  
부터 들려 나왔다.

“응! 다 쪼어?”  
혁이는 대답하며 풍로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철이는 혁이의 얼굴을 보더니  
“너 왜 울었니?”

하며 풍로를 받아 놓았다. 혁이  
는 잠잠하다.

“왜 눈물 자욱이 있어?”

“……”

“추어서?”

“아아니.”

“그럼?”

“……”

혁이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 나직  
히

“아까 성남이 하구, 순이 또  
영식이랑 이 앞으루 지나갔어  
!”

하였다.

철이는 남비를 풍로에 올려  
놓으며 물끄러미 혁이를 본다.

말 없이 혁이의 속으린 머리를 내려다 보는 철이의 눈에도, 빛나는 것이 보인다.

“아버지가 회원하시면 곧 학교 가게 돼! 녀석히 잘아 한 달만 쟁으면 돼!”

태연한듯이 말하는 철이의 목소리는 보르르 떨어나오고 있었다.

“그래꾸 난 자꾸 자고 싶은 건 뭐.”

혁이는 고개를 숙으릴새 불췌 소리로 뚱기고는, 어네 아랫목에 가 앉드였다.

이웃집 서재가 땡! 땡! 하고 어섯지 차는 소리가 멀리 들리 왔다.

한참 후에 입을 연 것은 철이였다.

“혁아! 또 옛날 얘기 해줄까?”

그러나 혁이는 대답이 없다.

그때다. 풍로 뚜껑이 풀뽕풀뽕 증 추듯 들썩거리며 김이 마구 솟아 오르고 뚜껑 밑으로 밥물이 줄줄 흘러 내리며 남비안에서 소리가 났다.

철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렸다. 혁이는 얼핏 일어나 풍로 걸음으로 다가앉는다. 그리고는 남비 뚜껑을 훌쩍 든다. 그러자 삼단 같은 김이 담뽕 혁이의 얼굴에 덮인다. 남비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나며 밥물이 넘친다. 그러나 김도 이내 걸히고 밥물도 잦아든다.

남비 뚜껑을 든 채 어쩔 줄을 모르며 엄뽕뽕하던 혁이는 그제야 붉으레 물든 얼굴에 웃음이 돈다. 혁이는 다시 뚜껑을

들는다.

“어제는 안그랬는데……”

혁이는 그제야 입을 열며 철이를 마주 본다. 철이도 빙그레 웃으며 말을 받는다.

“밥물이 넘칠 때 뚜껑을 마구 집어 들면 안돼. 한 쪽만 비스듬이 리어 놓면 돼! 이것 봐! 이럴 때 이렇게……”

철이는 남비 뚜껑을 한편으로 밀어 약간 티어 놓는다. 뚜룽뚜룽하고 다시 김이 솟으며 흘러나리러던 밥물이 도루 잦아 들고 만다.

“그럼 어젠 왜 그렇지 않았어?”

혁이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묻는다.

“어제꾸 그랬어. 너가 잘 보지 않아서 몰랐지 뭐야.”

혁이는 처음 보듯 남비 뚜껑을 뽕뽕 들어다 보며 무얼까 생각하고 있었다. 철이도 눈을 껌 껌 찰찰한 잠잠하다.

어느덧 방안에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안에서는 남비에서 밥 끓는 소리만이 높았다.

그때였다. 혁이가 생각난듯이 말했다.

“철아! 난 박사 아저씨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

철이는 대답하져 않았다.

“난 꼬마 아저씨씨는 싫어! 돈만 쓰구 술만 마시는 꼬마 아저씨는 싫어! 박사 아저씨처럼 재미난 얘기해주는 아저씨가 난 좋아!”

혁이는 혼자말처럼 증얼거린다.

철이는 나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사 아저씨는 애기잡하고 무어든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박사 아저씨라고 혁이가 이름 붙인 거다. 그러나 꼬마 아저씨는 술잘먹고 돈을 잘 쓴다고 했다. 혁이도 몇번이고 꼬마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는 허끄부방 소리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꼬마 아저씨는 한번도 혁이한테 재미 나는 얘기를 들려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사 아저씨는 만날 때 마다 보고 들은 얘기를 재미 나게 들려 주었다. 그럴 때 마다 혁이는 박사 아저씨와 한집에서 살았으면하는 생각이 떠 울랐다. 그러나 박사 아저씨는 집이 염등포에 있었고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놀러 오시지는 못했다.

혁이는 어머니한테서 박사 아저씨꾸 꼬마 아저씨꾸 처음에는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갈려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혁이의 기억에도 꼬마 아저씨네가 용산으로 이사 가던 일은 어슴푸레 생각 나기도 했다.

○ ○

철이가 장사하시러 나간 어머니한테 저녁 밥을 가져갈 취에 혁이 혼자서 밥그릇을 씻고 있노라니까 꼬마 아저씨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철이는 어디 갔나?”

“어머니한테 전지 갖구 왔는 건요……”

꼬마 아저씨는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으신지 들명했다. 입

에서도 슬픔새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뜰 해서 말이 적은 것으로 보아 그러했다. 꼬마 아저씨는 한참동안이나 아무말도 없으시다

“혁이는 당분간 우리집에 가 있도록 해야겠다. 아까 병원에 끌려 왔는데, 아버지가 쉬 날것 같지않더라.”

하며 혁이를 내버려다 보셨다. 그 순간 혁이는 가슴이 떨리하며 무언가 못들을 말을 들은 것과 같았다.

아버지의 병이 쉬 놓지 않으

리라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혁이더러 꼬마

아저씨가 자기네 집으로 가자는 말에는 마구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었다. 꼬마 아저씨가 싫은 것은 물론이지만, 철이하고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을 걸 생각하면, 그건 안될 말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을 나갈 수는 없다. 철이와 어머니를 떨어져 있고 싶지는 않다. 안될 말이다. 그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될 일이다.

“우리집엔 토끼두 있구 또 밤그릇 셋지 않아두 좋구... 또 학교에두 갈 수 있구.....”

꼬마 아저씨는 또 혼자 중얼거린다.

그래도 혁이는 잠잠할 뿐 대답이 없다. 그러나 학교 간다는 말에 혁이는 귀가 솔깃하여 듣는다.



(밤 그릇 그릇을 씻어야 한다.....어머니가 장사 하셔야 살림할 수 있구, 또 아버지두 쉬 놓지 않느냐. 누가 그릇 씻는 거 싫어 하는 줄 아나 뭐...)

혁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렇다, 아버지가 나오시기까지는 집도 지키고 밥도 짓고 그릇도 씻어야 한다. 꼬마 아저씨 집에는 가기가 싫다. 차라리 박사 아저씨 집이라면 몰라도.....그러나 그것도 안된다. 어머니와 철이와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꼬마 아저씨는 한참동안이나 아무 말 없으시다

“혁아! 잘태냐? 안잘태냐?” 하고는 이어 무뚝뚝한 소리로 “집에서 고생하기 보다는 낫지 않을라구.....”

하며 혁이를 땀내려다 본다. 더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혁이는 그때에야 번쩍 고개를 쳐들며

“집에서 고생해도 난 어머니 하구 철이 하구 떨어져 있진 않을 테예요. 토끼두 싫어요, 그릇 씻는것두 재밌어요!”

하며, 후후 느껴 울었다. 혁이는 어쩐지 자꾸 슬펐다. 무언가 가슴을 두집게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분한 생각

이 들었다. 남들과 같이 학교 다니며 뛰놀 수 없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 봐! 어머니 하루 두 얘기두 해 불테니.”

꼬마 아저씨가 돌아간 뒤에 철이는 마루에 나서서 멀리 한 걸을 보았다. 이윽고서 철이가 휘파람을 불며 걸어 오는 것이 아스럼히 내다 보인다.

철이는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부터, 꼬마 아저씨가 농담 비웃이 말씀하던 것을 잊지 않았다.

“철이를 우리가 가져 가야겠어. 우리집엔 아이들이 없어서 너무 적적하단 말야...”

철이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철이는 꼬마 아저씨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다.

철이는 손에 발가스레한 사과 두개를 쥐고 있었다.

“어머니가 철이 먹으라고 줘 어.....”

철이는 덩석 받는다. 그리고는 덩성덩성 씹는다. 그러나 철이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이 사과 어머니가 줘?” 하고 무엇을 찾아내려는듯이 말그림이 철이의 얼굴을 쳐다 본다.

철이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

철이는 또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다. 철이는 덩성덩성 먹고 있던 사과를 그냥 뱉어버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냐! 아냐! 이전 꼬마 아저씨가 사보낸 거야. 아버지한테두 못보낸 사과 나한테 보내? 난 꼬마 아저씨네 집에 안갈테야! 어떠한 일이 있든 거긴 안갈테야!”

철이는 철이의 손목을 붙잡고 한참 동안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철이는 몇번이고 철이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너가 정 싫으면 안가고 좋다 ! 싫다는걸 억지로 보낸다 구가 있지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병은 앞으루 한번 동안은 걸려야 낫을 모양이니 집에서, 놀기보다는 꼬마 아저씨네 집에 가면 학교두 갈 수 있잖니? 너무 알지만 인젠 시간두 거의 없이 다 팔아 버렸구, 어머니의 장사 만으로는 이대루 살림두 지탕해 나가지 못할 형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낫으실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 아니냐. 집 형편이 이럴 때는 그러는 게 되레 아버지를 위하는 일일게구, 또 우리 장래를 위하는 길일게

달력없이 요일 알아내기

올 크리스머스는 무슨 요일?

올이오는 크리스머스가 무슨 요일이나는지, 내년 5월 어떤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알려면 달력을 뒤적여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꼬박꼬박 연필로 생해보아야지요? 그런데 올 것은 물론이고 내년 몇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애쓰지 않고 알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기 전에, 여

머분은 우선 해에 딸린 수와, 달에 딸린 수를 아셔야 합니다.

해에 딸린 수는

4282년 ..... 3	4286년 ..... 1
4283년 ..... 4	4287년 ..... 2
4284년 ..... 5	4288년 ..... 3
2월까지 ..... 6	2월까지 ..... 4
4285년 3월부터 ..... 7	4289년 3월부터 ..... 5

그리고 달에 딸린 수는

1월 ..... 2	7월 ..... 1
2월 ..... 5	8월 ..... 4
3월 ..... 5	9월 ..... 0
4월 ..... 1	10월 ..... 2
5월 ..... 3	11월 ..... 5
6월 ..... 6	12월 ..... 0

이 두 가지의 수를 알아가지고 (그 해에 + 그 달에 + 날수) (달린 수 + 달린 수 + 날수) ÷ 7 = x ..... 남는 수

이 남는 수가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 6이면 토요일, 남는 것이 없으면 일요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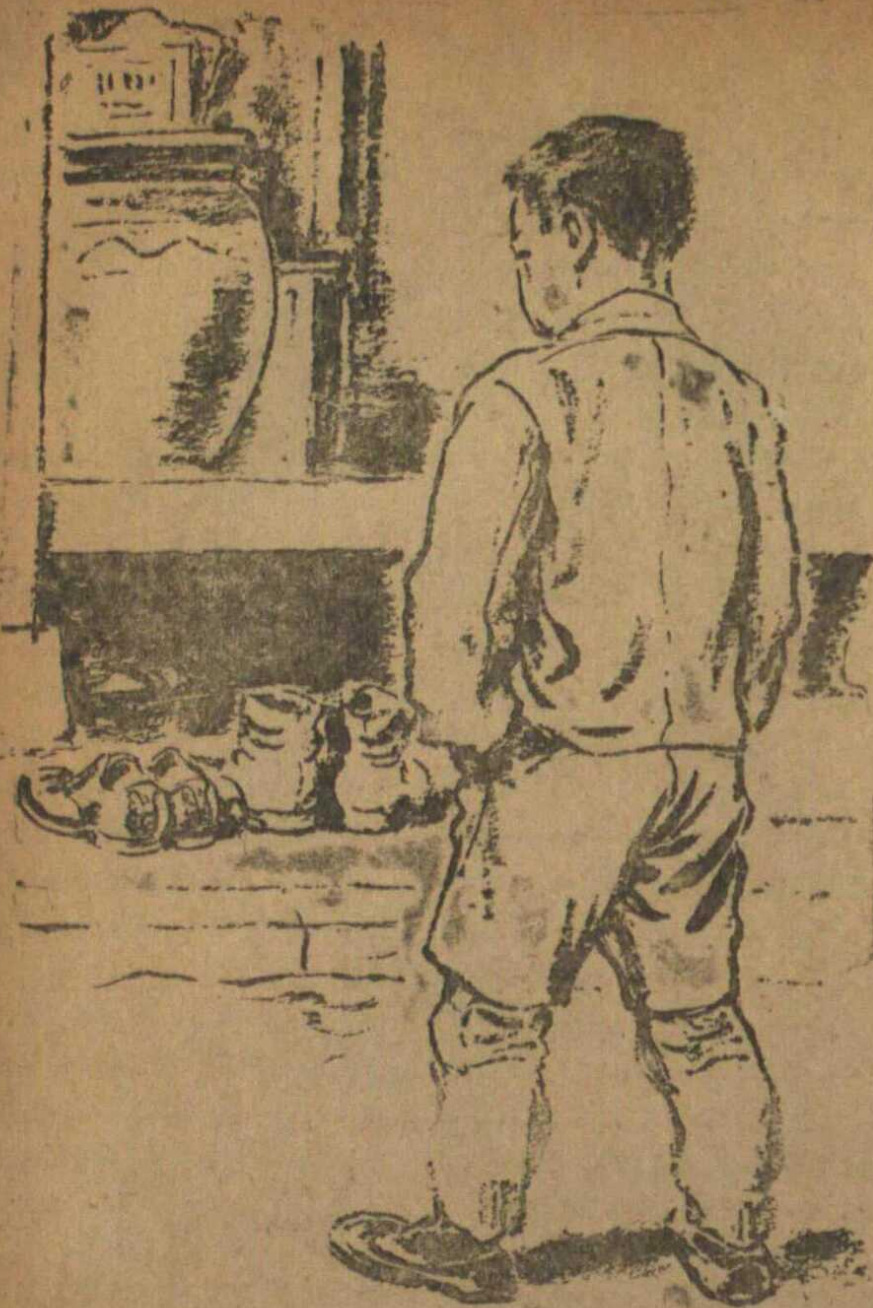
그럼 올 크리스머스가 무슨 요일인가 알아볼까요?

올해에 12월에 딸린 수

(3 + 0 + 25) ÷ 7 = 4 ... 0

남어지가 없으니까 일요일입니다. 맞나 안맞나 찾아 보세요.

한가지 조심할 것은 윤년 (閏年)이 드는 때 마다 2월까지는 그대로, 3월부터는 해에 딸린 수에 1을 더하여야 합니다.



다.”

혁이는 잠잠한채 아무런 대답도 없다. 철이도 다음 말을 잊지않았다. 방안은 어둠 속에 무겁게 잠겨 있었다.

○ ○

그일이 있은지 한 주일이나 지난 어느날 점심 나절이었다. 밤에 나갔다 들어오던 혁이는 마루 밑에 간지런히 놓여 있는 구두를 보자 가슴이 떨쳐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틀림

없는 꼬마 아저씨의 붉은 빛나는 구두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험수룩한 구멍 뚫린 구두는 틀림 없이 박사 아저씨의 구두였다.

“박사 아저씨두?”

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무때도 무슨일이 일어난 것이 불명했다. 혁이가 집에 들어가자 박사 아저씨는 혁이의 손목을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소년 소설책과 그림책을 한권씩 주셨

다. 그리고 꼬마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칸디와 동그란 구슬사탕을 한봉씩 꺼내 주셨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혁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혁아! 아버지 병이 낫아들 아오실 때 까지 작은 아저씨네 집에 가 있다 와, 응? 아버지 치료비를 대알텐데 장사누갈 안되니 어떡하니? 아저씨네 집에 가면 당분간 거기서 공부할 수도 있잖나?”

박사 아저씨도 꼬마 아저씨도 철이도 어머니도 잠잠한채 혁이를 마주 본다. 혁이도 잠잠한채 두리번거릴 뿐 대답이 없다가 그대로 목 고개를 숙인다.

“혁아!”

박사 아저씨의 말소리다.

“아주 가있으라는 건 아니야. 집 형편이 이렇게 됐을 뻔할 수 없지 안나? 어머니나 철이도 너와 떨어져있는게 괴로울게 아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낫는데부 집에 돌아오도록 하구 어머니의 말씀을 지켜라. 응?”

혁이는 속 느꼈다. 그러나 혁이는가택이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철이는 흐르는 눈물을 돌아앉으며 타는다. 그리고 어머니도 눈에 흥건히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언제 준비 하셨는지 농작을 뒤지시더니 새 양복을 꺼내 혁이에게 입으라구 하셨다. 아마 그건 벌써부터 꼬마 아저씨가 사다 놓은 모양이다. 양복은 박사 아저씨가 입혀 주셨다.

철이는 책보에 풍채와 연필과



크리시를 써주었다.

“아저씨! 인제부터 작은 아저씨네 집으로 놀러 오세요? 네?”

혁이는 다짐하듯 박사 아저씨에게 묻는다. 박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요일날 마다 갈테니까 얼어 물어.”

“그럼 꼭 오셔야 해요네?”

“응! 십너 물어.”

혁이는 꼬마아저씨한테 손목을 잡으며 문밖으로 나갔다. 겨울 바람이 살을 에이듯 매서웁게 얼굴에 스친다.

“혁아! 쓸데 없는 생각 말고 공부잘해야 해 응? 너가 쓸데 없이 짐생각만 하구 공부두 잘 않구하면 난 너를 안만 날테야.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

히 해브러야 아버지의 명을 완수한다는 걸 잊지 물어해 응? 다음 만날 땐 서로 웃으며 또 재미 나는 얘기 하자 응?”

철이는 옆에서 나죽히 그렇게 말했다. 혁이는 자주 울며 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그러나 혁이는 철이가 말할 때 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 다음 12월치 **소학생** 의 중요 내용

## 보라! 여러분의 “소학생”은 다달이 커간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 기 예 수** 김 은 우 역음  
그림 이야기 **아 기 예 수** 최 수 섭 그림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분이 탄생하신 때에 어떠하였으며 어떠한 과탄이 있었는가?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들어간 재미있고 유익한 사회생활 공부입니다.

### 특집 · 겨울 방학 웃음 선물

온 집안이 한 방에 모여서 마음 놓고 웃읍시다! 웃음에 주린 사람에게 특효!

#### 옛날 어른들의 익살 이야기

☆우리 민족에는 이처럼 엄청나고 통쾌한 익살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아 둡시다

- 1 대설곳은 오성 대감
- 2 웃기며 꼬집는 정 수동
- 3 엉터리짓 잘하는 백 문선
- 4 재치꾸러기 정 만서
- 5 의뭉스런 봉이·김 선달

#### 척척 박사 깔깔 박사의 입씨름

큰 야단이 났읍니다. 척척박사와 깔깔박사가 누가 익살을 잘 부리나 큰 싸움이 벌어졌읍니다.

이 밖에 웃음 전람회 · 웃으운 시조 · 웃으운 민요가 수두룩하여간 이만큼 허리를 휘어잡는 익살주머니는 전에는 없었읍니다

연재 소설 **이름 없는 별들** (정 인력 저음) 어릴적에는 그 학교에서 일어 난 특유의 전설이 드러납니다.

연재 소설 **모 오 구 리** (작은돌 빈안) 원술에게 잡혀간 모오구리를 살리기 위하여 능구렁이가 용원.

이 밖에 화보·과학기사·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으며 값은 여전히 100원  
다달이 모자라 못사보는 독자도 많으니, 여섯 달치를 한꺼번에 보내시면 우편값은 여기서 물니다



★ 우리 학교 작품 ★

제 13 회 마산 성호 학교치

작 문

공

4년 김 창 근

오늘은 일요일. 아침부터 맑게 개인 하늘이다.

아침 밥을 먹고 건너 편 우리 학교에 놀러갔더니, 마침 우리 반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다. 나도 함께 차자고 말하였더니 그 동무는 성난듯한 낯으로 웃 들은채하고 공만 찬다.

.....나, 그 공 안차도 좋지만, 같은 반 같은 동무 때터 함께 차면 어때.....

이렇게 속으로 혼자 말하고 저 쪽으로 가버렸다.



습자 5년 장 제 욱

남 쪽 바다를 앞두고 아담하게 유쾌  
히 서 있는 경남 마산 성호 학교는  
단기 4240년 4월 즉 지금부터 40년  
전에 공립 보통 학교로, 이 나라 어린  
이를 위하여 배움의 문을 열었던 것입  
니다. 물결도 거세던 지난 43년을 주  
히 우리 나라 일군을 길러낸 이 성호  
학교는 그간 남자 4900명 여자 2450명 또한  
7350명의 많은 졸업생을 사회에 내 보  
내고 지금은 손 등은 교장 선생님을 바  
뚝한 44명의 선생님이나, 2700명의 어린이  
를을 맡아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 새 싹을 기르고 있습니다.

한참 차고 있던 동무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가  
보니 저 편 아이가 공을 잘못 차, 이 쪽 아이의 낯  
에 맞아 그만 코피가 난 것이다. 나는 얼른 씻어  
주려다가 아까 공 좀 차자해도 못들은 체하던 그  
알미운 생각을 하니 닭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  
다. 그러나 같은 동무끼리 안닭아 주는 것은 못살  
일이라고 생각 하고 코피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

닭고난 아이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공을 같이 차  
자한다. 나는 고맙다는 얼굴로 재미나게 차다가 집  
으로 돌아왔다.

동 요 보 실 비

4년 이 창 모

보실 보실 보실비 고옴게 오네

대한민국  
당일민족

도화 5년 정 상 들

꽃밭에도 살살 옥수수 밭에도 살살  
 새싹눈이 눈떨까봐 조용 조용 오네요  
 보실 보실 보실비 조용히 오네  
 우리집에도 살살 학교에도 살살  
 공부할때 시끄러울까봐 조용 조용 오네요

동요 비오는 아침

4년 조 철 자

부슬부슬 가랑비  
 내리는 아침에  
 엄마엄마 춥다고  
 어린양을 부러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뽀뽀 뽀뽀  
 부엌 앞에 조르르  
 모여 앉아요

동요 별

4년 강 석 문

별들은 별들은 무엇일까요?



☆ 나의 당부 ☆  
 손동은 교장 선생

◎ 부지런히 공부하자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아는 것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미서 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러도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모르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은 탓이다. 많이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힘을 길러야만 한다.

◎ 자주성을 가지자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할 일을 내가 하고 내일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독립국가의 자유민이다. 남에게 의뢰하고 재물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씩씩하게 바르게 자라서 나라를 두텁하게 살리는

하늘 나라 조그만 등불이래요  
 밤이되면 어어쁜 불을 켜놓고  
 우리를 잠 자는 데 곱게 비쳐 주지요

동요 고향쟁이 나의동생

3년 고 금 휘

나의 동생 예쁜 동생 고향쟁이  
 학교 갈때 인사소리 개와장이 딸석딸석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갔다 오겠습니다”고  
 큰 소리 하지요

× ×

나의 동생 귀여운 동생 고향쟁이  
 학교 가서 책 읽는 소리 개와장이 딸석딸석

“아버지 어머니 칠수와 바둑이 영이와 순이”  
 가

우리 교실까지 들려 오지요

× ×

나의 동생 착한 동생 고향쟁이

집에 와서 노래 공부 개와장이 딸석딸석

“도레미화 솔라시도 도시라소 화미미도”

가 제법 맞지요



동시에, 남의 나라에 의뢰하지 않는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가 빛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자

이론이 많고 실행이 적은 것은 오만한 우리네의 공통된 결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다. 말만으로서 되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남의 배운 것도 또한 지식으로서 알아 들어만 이것을 작은 학문이다.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 비로소 힘되고 산 학문이 되는 것이다.



수학장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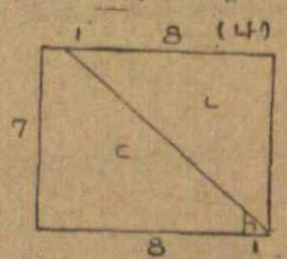
☆ 1 = 0 ☆

기수의 언니는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가끔 기수나 영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수학공부에 맛을 붙이도록 합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탁트리에 둘러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하다가 언니는 기수보다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래가지고 빙글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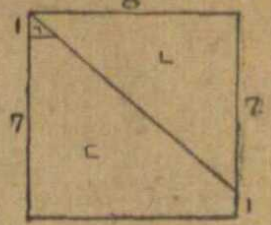
글 웃으며 “1이 0하고 같다는 이상한 일을 얘기해 줄까?” 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은 하나고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하고 없는 것하고 같다니



필말이냐고 이상스럽게 여기는 기수와 영순을 바라보며 “1이 0과 같다는 것은 누구든지 믿지 않

을 것이고, 또 사실로 그랬다간 큰일 날 일인데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 (가)



이렇게 말하며 언니는 길이 8cm의 정방형을 그리더니 그림 (가)와 같이 1, L, C 세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그림 (나)와 같이 맞춰 놓고

“자아 먼저 8cm의 정방형의 넓이는 너의 들도 계산할 수 있지?” “64cm<sup>2</sup>”

영순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서 구형은 세로가 7cm, 가로가 9cm니까 넓이가 63cm<sup>2</sup>밖에 더 되니? 그런데 사실은 정방형 가지고 그대로 구형을 만든 것이니까

$$\text{정방형의 } \frac{7+L+C}{64\text{cm}^2} = \text{구형의 } \frac{7+L+C}{63\text{cm}^2}$$

이때야 할 것이니 양쪽에서 같은 수를 빼내도 등식 (等式)은 성립되는 것이니까 63cm<sup>2</sup>를 빼면

$$1\text{cm}^2 = 0\text{cm}^2$$

결국 1 = 0 이란 생각못할 요술

★ 요술 놀이 ★  
먹물이 카라멜로

적상 위에는 먹물을 담은 커다란 유리컵과 좁다랗게 자른 종이 조각과 넓은 손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술 한가지를 하겠읍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이 유리컵에는 진짜 먹물이 들어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문(呪文)을 한번 외이면, 이것이 금시에 카라멜로 변합니다.” 하며 요술하는 플랄이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선 먹물이 진짜인가 가짜인

가 증명하기 위하여 이 쥬크이 조각을 넣어 보겠읍니다. 자아 어떻습니까? 까맣지요. 이것으로 먹물이 틀림 없다는



(가)

(나)

증거가 되었지요. 아시겠읍니까?” [그림(가)] 요술하는 플랄이는 까맣게 물은 종이 조각을 놓고서 손수건을

들었읍니다. “다음은 이 손수건으로 컵을 덮어 놓고, 주문을 한번 외이겠읍니다. 자 보십시오. 먹물이 카라멜로 됩니다.”

무엇이라고 입안소리로 웅얼웅얼 할다가 야!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덮어 놓았던 손수건을 치워 놓으니까 [그림(나)] 아니나 다를까, 이 어찌된 조끼겠읍니까? 먹물은 한방울도 없고 컵 안에는 맛있는 카라멜이 한강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플랄이는 그 카라멜 속에는 것을 한개씩 고내어, 구경하는 동무에게 나눠 주었읍니다.

이생진단 말이다.”  
 언젠가 종이에 식을 그려가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순이는 물론이요 기수도 드카비에 훌륭한 것처럼 명하니 감탄을 잡지 못하고 비탄을 기웃거리었다.  
 때때로 어찌서 그런 훌륭한 셈이 나오게 된 것인지요?

☆이상한 덧셈☆

기수와 영순이가 명하니 이상스러워하는 것을 언니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녁상을 치우시고 불이오셔서 종이쪽을 드러다 보시고  
 “너희들이 언니 훌륭한

수에 넘어갔구나. 그럼 이번에는 내가 재미있는 것 한가지를 알려주자?”  
 “뭘인데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다가 영순이가 뭘까 아무 수고 써놓고 그다음에 기수가 쓰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 그다음에 인수 그다음에 내가 써서 그 수를 모두 덧한 답을 영순이가 제일 먼저 쓴 다음에 바로 적어서 마친단 말이다. 자 영순아 몇자라고 네 마음대로 써라.”  
 영순이는 언필코 종이 위에 45789라고 썼을

간 생각하시는 듯하여 너 만 종이에다가 수를 써서 집어 놓시며  
 “이 답은 우리가 다 써서 답을 내가지고 데 보자. 영순아가 다섯자면 수를 썼으니 모두 다섯자라고 써야 한다. 자 기수 어서 써라.”  
 기수가 28245라 썼더니, 어머니는 바로 71754라고 그 아래에 쓰시고 언니가 54398 이라고 쓴 아래에 다시 45601 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다 썼으니까 누가 덧셈을 해봐라”  
 기수가 다음과같이 덧셈을 했습니다.

```

4 5 7 8 9
2 8 2 4 5
7 1 7 5 4
5 4 3 9 8
+ 4 5 6 0 1
-----
2 4 5 7 8 7

```

“자 내가 쓴 것하고 똑 맞지, 봐라.”  
 하시며 어머니가 집어는 종이를 내보셨습니다. 과연 245787이라고 틀림없이 적혀있습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때  
 “알았어요! 알았어요!”하고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하면 머리 남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르셨던 선생님께서 어찌 보십시오.  
 (해답은 다음차에)

물들이요 술을 잘하지요?

【요술 방법】  
 이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재미있고 구경하는 동무가 풍부하게 되는 요술입니다. 우선 제일 큰 유리컵을 한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도화지나 두꺼운 종이로 컵 안에 쪽들이 갈만한 둥근 통을 만들고, 그것에다 먹물로 자랑게 칠합니다. 이것을 컵 안에 놓으면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먹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컵 속에 카라멜 한 갑을 넣어두어도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림(가)에서와 같이 좁다란 종이 조각을 먹물에

정말 담갔다 꺼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종이 조각의 한쪽만 먹칠을 하고 [그림(나)]  
 “이하얀 종이 조각을 넣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는 천국을 보이고 컵에 담겼다가 끄낼 때에는 먹칠한 쪽을 보입니다. 이 동작을 모티 있게 재빨리

잘하면 정말 먹물이 묻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므로 유쾌하고 재미있지요.  
 그다음에는 컵에 뒤집어 써왔던 손수건을 치울 때 [그림(라)] 컵 속에 있는 종이통을 수건과 함께 잘 때내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컵 속에는 카라멜이 남아 있게 되고 먹물은 온데 간데 없이 카라멜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카라멜은 속알이 있는 것으로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구경하는 동무에게 나눠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 소학생 11월치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소년소설특집은 재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정인택 선생님이 쓰신 "제비"라는 소설은 어찌서 제목을 "제비"라고 붙이셨나요? (서울 청량리동 김형규)

△홍부 집 제비는 보은로라는 박씨를 잤다 주이 은혜를 갚았지요. 정의도 광수집의 은혜를 그 제비처럼 갚는 다는에서 제목을 "제비"라고 붙이셨답니다. (기자)

▲소학생을 길러주시는 기자 선생님 처음 뵈겠습니다. 한가지 여쭙어 볼 것이 있는데 "소학생" 애독자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저는 처음으로 잘안봤으나 최척박사 두편을 보내오니 잘지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자 선생님 사진을 "소학생"에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서울 화동 126 윤승중)

△"소학생"이 국민학교 마다 아니 퍼지는데가 없는게다가, 한 편 가지고 혼자만 보지 않을 거 더 글씨 얼마나 될지 이두 세지 못할 지경입니다. "소학생"에 글과 그림을 쓰고 그려주시는 선생님들의 사진은 요달달치 꼭담되 기사와 다달이 결장 안쪽에 내드렸지요. 기자들의 사진은 다음 게재를 기다리십시오. (기자)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책중에도 "소학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제3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다달이 사봅니다.

선생님 부디 몸건강하셔서 "소학생"을 한달에 두번씩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이정하)

△한달에 두번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정수를 차츰차츰 늘이도록 애쓰는 중입니다. (기자)

▲선선해지는 이때 아홉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독자가 되어 여러가지 볼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도 등요와 작문을 보내도 좋습니까? (수원 배산교 6의1 이기원)

△좋습니다. 등요나 작문 뿐만 아니라 최척박사 깔깔박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자)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재미 있는 등요 "소학생" 70호를 읽고 나는 참 좋았습니다. 나는 "에티카"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다음에도 그와같은 소설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모험소설 "모오구리"의 다음이 궁금합니다. 71호가 몹시 기다려 집니다. (서울 수송교 6의4 김희우)

△앞으로도 재미 있는 소설을 많이 실겠습니다. 그리고 "모오구리"는 이따치를 읽어 보셔도 아실데지만 점점 더 재미 있어 갑니다. 등무틀게 널리 이야기하고 다음을 기다려주십시오. (기자)

(15페이지의 해답)

- 1 책장의 책이 거꾸로 뿔렸다.
- 2 바스의 바퀴가 없다.

3 철관이 거꾸로 걸렸다.

- 4 던지는 공이 야구. 공이 아니고 럭비 공이다.



☆책 읽기에 알맞은 이때에 보내드리는 "소학생" 11월치! 여러분의 기대에 과히 어그머집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책을 제때에 드리지 못할때 대해서는 꾸중을 물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다달이 화보 "즐거운 한때"에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인 박영종 선생님의 사진을 내드렸습니다. 시를 쓰시고, 여러분이 다달이 보내주시는 등요를 끊으시느라고 바쁘신 선생님이지만 또 이렇게 한가하신 때도 있으시답니다.

☆올 때영 선생님이 기쁘게 주시는 "세공부"는 때놓지 않고 꼭 꼭 공부를 하시는게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고 싶습니다.

☆12월치는 예고만 보셔도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아주 호화스럽고 정말 재미있는 잡지로 만능기에, 우리는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오구리"도 대판약을 하기 시작 합니다.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심은정)

4282年 11月 1日 號  
**소학생 · 값 100 원**  
**11월치★제72호**  
 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金元植  
 發行所 兒協  
 4283年 9月 30日 發售 每248番  
 서울 鍾路 2街 82 永樂빌딩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  
 電話 0328  
 光化門 3970  
 3492  
 文報館 0187

서울신문社 印刷局  
 (280年 9月 31日 發售 第14號)



# 강가에 앉아서

# 박남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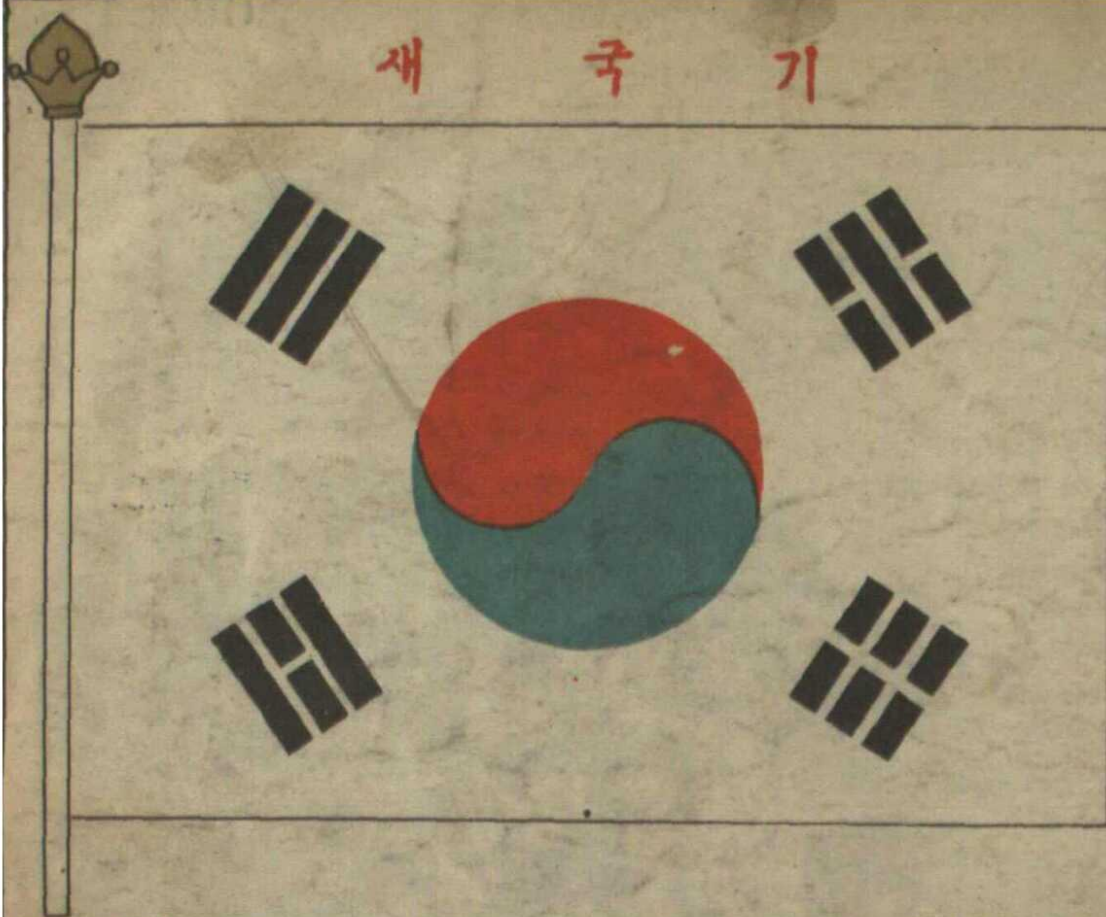


집 이층에서 받들음만하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물기가 보인다. 나는 이 이층에서 시도 쓰고, 동시도 짓고, 동시도 쓴다. 밤 늦도록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나면 나직한 한강의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귀를 기울여보기도 한다.

또 간혹은 나의 어린것과 한강에 바람 쓰이더 가기도 한다. 나의 어린것은, 큰 놈이 동규다. 남정 국민 학교 오학년, 다음 것이 딸아이로 맹이다. 사실은 동명(東明)인텐, 다 맹이야, 맹이야 부른다. 끝의 세살먹은 놈이 박 남규다. 그냥 남규가 아

니고 복성을 붙여서 박 남규라 부른다. 네 이름 뭐지? 물으면 의태진 사람들이 옆에서 박 남규라 대답해준다. 현실인지 모른다. 모조리 소학생 애들이다. 아버지가 책을 가져오기 바쁘게 동규가 먼저 읽는다. 읽고, 동명이와 남규에게 그림을 보여가며, 이야기를 하여주는 것이다. 그럼 나는 그들이 읽고난 소학생을, 얼른 가져다가 깃이 감추어 버린다. 나는 나대로 소중한 모아두고 싶기 때문이다.

# 새 국 기



우리 국기가 바르잖  
했다. 지금까지 쓰던  
국기는 구왕궁에서 가  
지고 있던 것을 그때  
로 바꾼 것인데, 이  
것이 옳지 않으므로 문  
부에서 지난 2월부  
터 여러 가지로 연구  
한 결과, 그림과 같이  
고치게 되었다.

전와 다른 점은 감,  
미의 자태가 바뀐 것  
과, 깃봉이 연꽃 봉오  
리던 것을 금빛 무궁  
화 봉오리로 한 것이  
다.

누구나 바르잖히 새  
국기를 쓰도록 하자.

## 전국 어린이들 대망의 책

서울

동방문화사

11월 20일 발행  
값 700원 예정

4283년 판  
새로된

# 아 동 연 감

어린이 여러분들의 체중은 국력의 비중

어린이 여러분들의 영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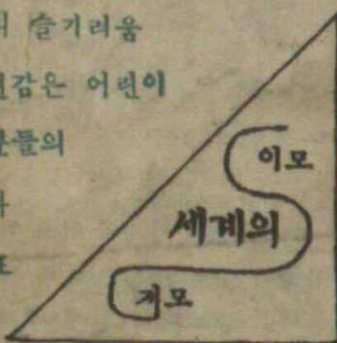
조국의 슬기러움

아동연감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영양과

체중표



### 대한민국 독립 일년간 일지

- 한국 문제와 UN ○ 정부기구 조직표
- 병역법 ○ 우리 나라의 발달
- 학도 호국단 조직 도표
- 우리 나라의 농산물 ○ 우리 나라의 임산물
- 우리 나라의 공산물 ○ 우리 나라의 광산물
- 우리 나라의 수산물 ○ 우리 나라의 전력

### 우리 나라의



- 중
- 요
- 목
- 록

- 각국의 전국한 연대
- 세계의 신문
- 세계의 육군
- 세계 인명전
- 국제 연합에 가입한 나라

여분들 몸 속으로 떠나갈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려준다

# 조선말큰사전

제 1권 • 2,000원  
제 2권 • 1,500원